

건강가사 강꾸람 을느느들

보건의료 디지털 혁신으로 최적의 의료문화를 만드는 Global HIRA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소식지

VOL.182

2021. May | Ju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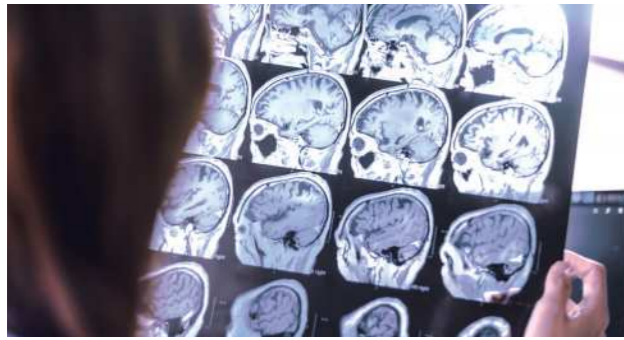




바람과 함께 넘는 고개
대관령

38세의 신사임당은 어린 율곡의 손을 잡고 대관령 언덕을 넘다가 친정에 두고 온 어머니를 그리며 시 한 수를 읊는다. “돌아보니 북촌은 아득도 한데 / 흰 구름만 저문 산을 날아 내리네.”
 사임당의 명시 ‘유대관령망친정(踰大關嶺 望親庭)’의 한 구절이다. 유난히도 바람이 강해 사시사철 서늘하다는 대관령은 해발 832m로 매 굽이마다 험준해 그 누구에게도 호락호락한 여정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서지방과 서울로 갈 때 반드시 거쳐야 해 강원도 지역민의 애환이 서린 길이다. 1990년 후반까지 굽고 휘어진 도로와 강풍으로 운전자들에게 어려움을 안겼지만 2001년 왕복 4차로 도로에 열선, 긴급제동시설 등이 갖춰지면서 어느 정도 안전성이 제고되었다. 특히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을 치르면서 대관령의 접근성은 한결 보장되었다. 사시사철 서릿발 같은 추위가 머무는 대관령이지만, 7월에서 8월에 걸치는 짧은 여름이 대관령의 정취를 즐기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다.





건강한 오늘

04

닥터 톡톡

갑자기 찾아온 불청객 "치매"
3가지 분류로 알아보자

08

HIRA 빅데이터

기관지 염증에서 비롯해 발작까지 유발하는
천식

10

위로의 약방

무릎이 시큰할 때,
알고 쓰는 파스

12

건강 인문학

나와 내 가족이,
치매와 함께하는 여로

14

평가정보

COPD 적정성 평가 결과



당신 덕분에

16

빛나는 그대

전문성으로 무장한 우리동네 주치의
SG삼성조은병원 박형석 원장

20

고마운 레시피

미혼부 자녀 건강보험 적용 안내

22

반가운 당신

예측할 수 없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급여제도연구실을 만나다

26

함께의 가치

마음을 드립니다, 꽃바구니 만들기 체험

30

열정 36.5°C

공정성과 객관성을 지키는
평가실



함께하는 내일

34

마음 연구소

부모의 사랑이 아이의 상처가 되지 않으려면

36

미디어 속 건강

영화 <미나리>로 보는 뇌졸중

38

#나누는 건강

건강하고 아름다운 몸매를 위한
나만의 다이어트법은?

40

HIRA NEWS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A등급 획득 외

42

독자마당

정책 이야기 BOOK in BOOK

의약계 안내사항

02 ① 2021년(2주기 3차)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 안내

04 ② 「신규 평가항목 제안 시스템」 안내

09 ③ 비급여 진료비확인 업무처리 시
「요양기관업무포털」을 이용하세요

12 ④ 2021년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현장지원 컨설팅서비스
안내

14 ⑤ 요양기관 청구의약품 구입수량 사후관리 안내



건강을 가꾸는 사람들

보건 의료 디지털 혁신으로
최적의 의료문화를 만드는 Global HIRA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소식지

VOL.182

2021. May | June

발행일	2021년 5월 26일 통권 제 182호
발행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소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60(반곡동)
발행인	김선민
편집인	김한정
기획·디자인·사진	(주)이팝
인쇄	태백종합인쇄공사
고객센터	1644-2000
ISSN	2384-405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온라인 홍보 채널에서도
다양한 건강정보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 사보 <건강을 가꾸는 사람들> 전자판 구독 www.hirasabo.or.kr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식 블로그 http://blog.naver.com/ok_hira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식 유튜브 www.youtube.com/okyeshira



웹진
<건강을 가꾸는 사람들>



카카오톡 채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을 가꾸는 사람들>

- *책자 오른쪽 상단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2차원 음성 바코드가 인쇄되어 있습니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건강을 가꾸는 사람들> 제호는 말싸미815 서체를 사용하여 제작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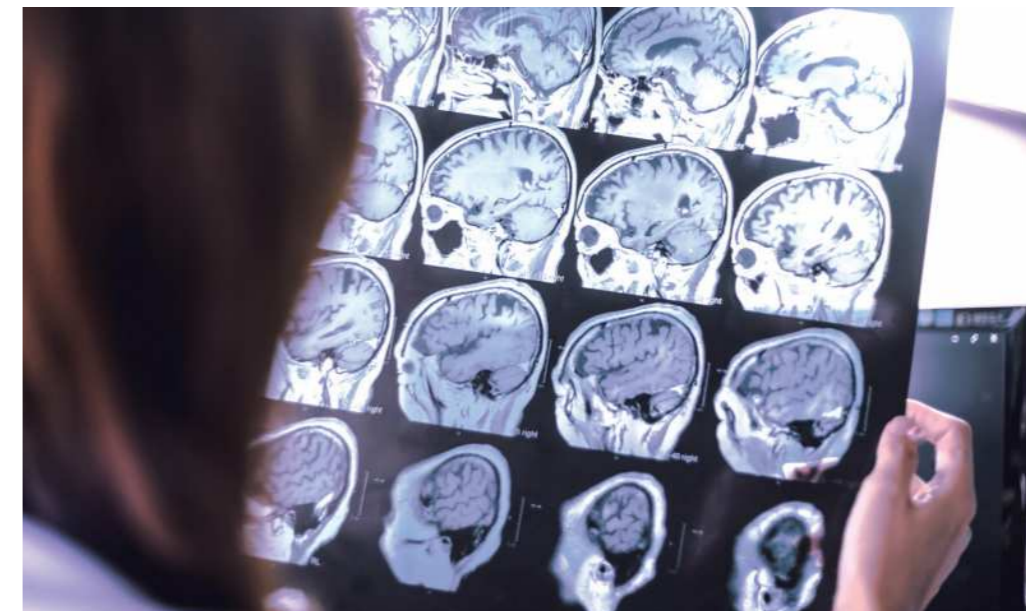
<건강을 가꾸는 사람들> 5·6월호와 관련된 모든 촬영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진행하였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불청객 “치매” 3가지 분류로 알아보자

곧 도래할 치매인구 100만 시대. 나 혹은 내 가족이 걸릴 수 있는 병이다.
신경세포를 재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꾸준하고 섬세한 관심으로 조기에 치료한다면 진행속도를 늦출 수 있다.
조기 발견과 초기 치료가 중요한 치매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자.



글. 정지향(이대서울병원 신경과 교수)



치매의 초기 신호

2019년 고대구로병원 빅데이터연구회 연구결과에 따르면 2021년 현재 치매인구는 87만명이며 치매 고위험군인 경도인지장애 환자군은 220만명으로 추정된다. '노인이 되어 가장 걱정되는 질환' 1위로 꼽히는 치매는, 환자 본인이 겪는 힘듦도 있지만 배우자나 자녀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는 간병 부담도 큰 문제다. 지금까지 검증된 방법 중 치매를 이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조기 발견과 이를 통한 초기 치료다. 치매 조기 발견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관심 어린 관찰이다. 치매 등의 퇴행성 변화는 서서히 진행된다. 따라서 부모의 변화를 선제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만나거나 전화를 걸어 같은 질문을 던져 대답이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 확인해야 한다.

초기 치매증상 첫째는 최근 기억력의 저하이다. 따라서, 이전에 같이 경험했던 기억에 대해서 물어봐야 한다. 육하원칙으로 예를 들어, 누구와 함께,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등을 물어보자. 단순히 예, 아니오가 아니라, 어디서, 무엇을, 누구와 같이, 주 몇 회 등 상세하게 질문하여 변화를 확인해야 한다. 최근에 공유한 일상생활에 대한 기억이 없다면, 최근 뉴스에 나온 큰 사건, 시사 등에 대해서 물어봐도 좋다. 날짜도 중요한 기억으로 연도, 월, 요일을 기억하는지 확인한다.

둘째는 일상생활의 변화이다. 평소 보호자의 도움 없이도 잘 하던 요리하기, 빨래하기, 길 찾기, 전화기 사용 등 일상적인 활동에 문제를 겪는다면 초기 치매를 의심해볼 만하다. 이런 증상을 '일상생활 수행능력 장애'라 일컫는데, 치매를 진단하는데 있어 기억력 저하로 대표되는 인지 장애와 함께 치매를 진단하는 기준이 된다. 이전에 즐겨하던 취미생활, 사회활동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셋째는 성격의 변화이다. 특별활동 등에 대해 이전과 달리 눈에 띄게 관심과 흥미를 잃은 것 같아 보이면 우울증에 의한 가성치매나 치매에 의한 초기 우울증 동반을 의심해봐야 한다. 또한 가족에 대해 계속 관심을 갖는지, 가족 모임이나 행사에서 어떤 활동을 할 때 즐거워하고, 참여하고자 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치매 치료 가이드

현재 신경세포를 재생할 수 있는 치료방법은 없다. 따라서 초기에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며, 시작된 치료는 중단하지 말아야 한다. 치매 치료제는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에 비해 치매 진행속도를 약 30% 정도 늦추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현존하는 치매 치료제로는 아세틸콜린 분해효소 억제제인 도네페질, 리바스티그민, 갈란타민이 있다. 처음에는 경증에서 중등도의 알츠하이머병 치료제로 허가되었으나, 최근 중증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 치매 등에서도 효과가 입증되었다. 패치형 제제는 구강 제제에 비하여 위장관 부작용 발생 빈도가 2/3 정도 낮으나 부작용으로 접촉성 또는 알레르기성 피부병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심한 경우에는 부착을 중단하고 다른 제형이나 약물을 고려해야 한다. 그 외에

N-Methyl-D-aspartate(NMDA) 수용체의 대항제인 메만틴이 중등도 및 중증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인지기능 개선제로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치매 예방법

청장년기에는 뇌 보호, 뇌혈관 확인 및 청소 유지가 핵심이다. 뇌의 좋은 영양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매일 30분 이상 중등도 이상의 유산소 운동(주 150분 이상), 유해산소로부터 보호, 뇌에 좋은 음식(채소, 과일, 통곡물, 올리브오일, 오메가-3지방산이 포함되어 있는 생선, 베리류, 엽산 보조가 되는 종합비타민) 섭취(주 3회 이상) 등이 중요하다.

노년기에는 적절한 단백질 섭취와 당뇨가 있더라도 적절한 육류 섭취가 필요하다. 또한 비타민B군은 위축성 위염이나 잦은 음주로 흔하게 결핍되는데 이는 신경기능 감퇴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 비타민C와 같은 항산화제는 신경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산화 물질을 감소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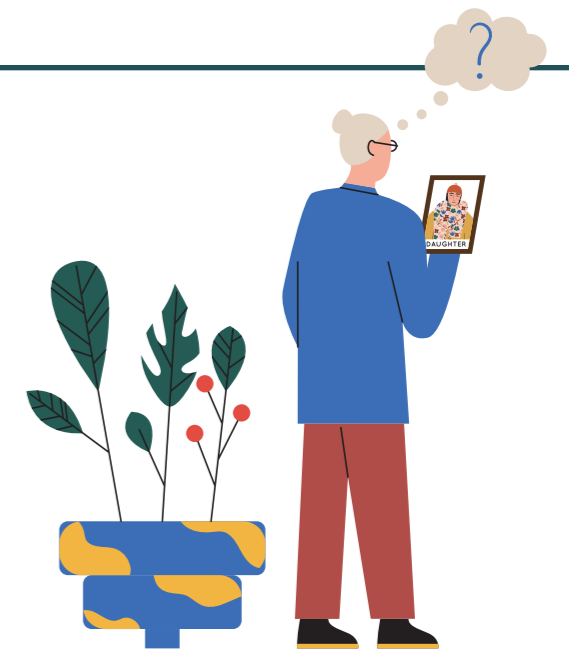
더불어, 7시간 정도의 수면(코골이, 수면무호흡, 빠른안구운동 수면장애 체크), 독서기억·암기·계산·분석과 같은 활동(주 5회 이상)을 하며, 주 2회 이상의 사회활동 유지를 통해 즐겁게



보낼 수 있는 가족이나 친구가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치매 예방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져야 한다.

치아상태가 좋으면 건강이 유지되어 인지장애가 덜 발생하므로 필요시 임플란트 또는 잘 맞는 틀니를 맞추어야 한다.

시력·청력 유지도 중요하다. 감각기관이 원활하지 않으면 정보처리능력이 저하되어 인지장애가 심해질 수 있다. 따라서 필요하면 보청기를 끼거나, 안경을 맞추고 백내장 수술을 해야 한다. 노인성 안검하수에 의해 시야장애가 있다면 시력을 유지하고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감각을 유지하도록 적절한 처치를 해야 한다.



Tip. 시기별 치매 예방, 이것만 기억하자!

- | | | |
|--|---|--|
| <p>청년기</p> <p>유산소 운동, 뇌에 좋은 음식 섭취</p> | <p>중장년기 이후</p> <p>적절한 단백질, 비타민 등의 섭취</p> | <p>노년기</p> <p>자신을 지지하고 즐겁게 보낼 수 있는 친구</p> |
|--|---|--|



기관지 염증에서 비롯해 발작까지 유발하는 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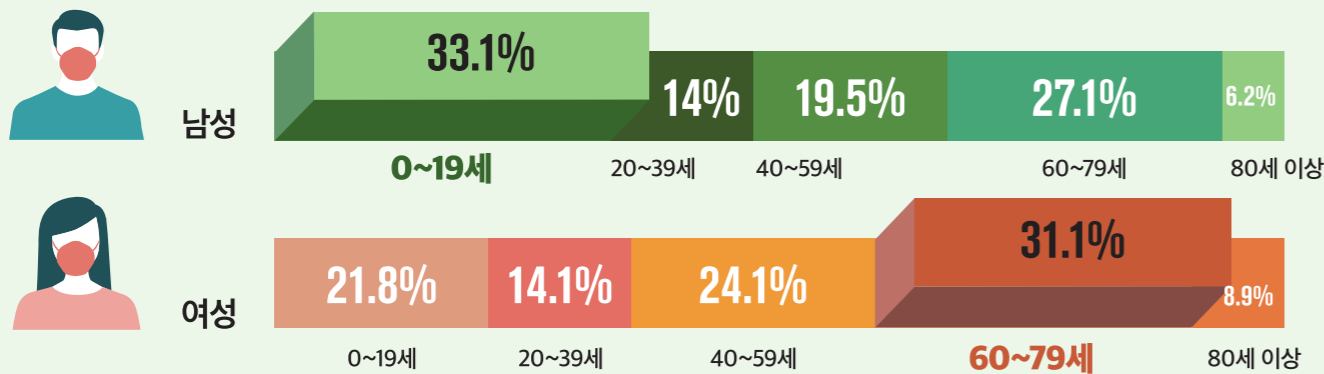
기관지 염증에서 비롯하는 호흡기 질환 천식.

천식은 호흡곤란, 천명, 가슴 답답함, 기침 등을 동반하며 특히 갑작스런 발작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공한 보건의료빅데이터를 통해 천식의 최근 통계를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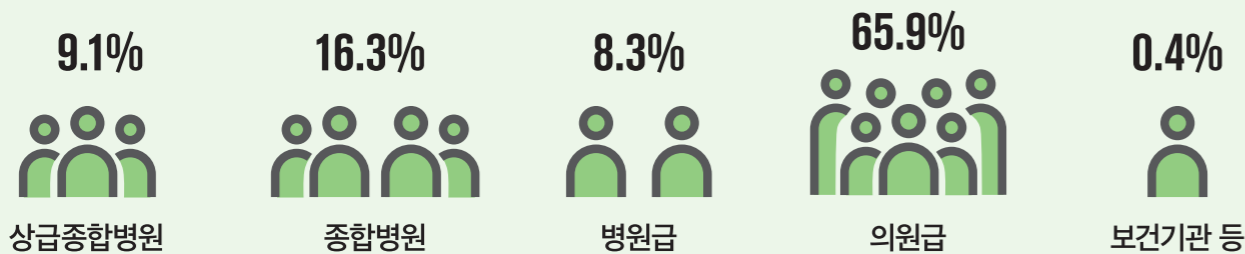
정리. 편집실

1 2020년 전체 환자 수 **92만 6,464명** 남성 44만 562명 여성 52만 1,700명

2 성·연령별 환자 비율



3 요양기관종별 환자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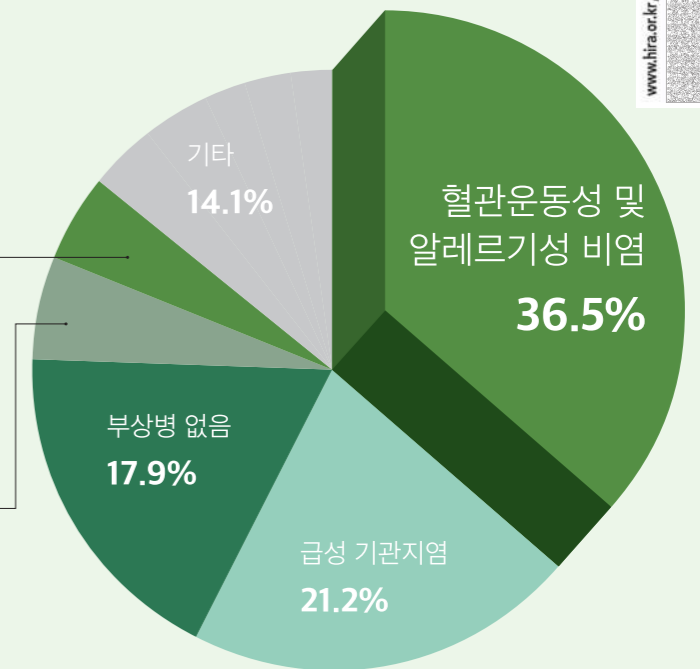
기타 유의사항

- 질병은 주상병 기준이며 최종 확정된 질병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총진료비는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환자 진료에 소요된 비용으로 보험자부담금과 환자 본인 부담금(비급여제외)을 합한 금액입니다.
- 연령별 환자는 진료비 명세서에 기재된 수진자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나이이며, 진료시점에 따라 중복 집계 될 수 있습니다.
- ※ 더 자세한 자료와 문의를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https://opendata.hira.or.kr>)' 과 '보건의료빅데이터시각화시스템 (https://opendata_visual.hira.or.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동반상병 환자비율

상위 5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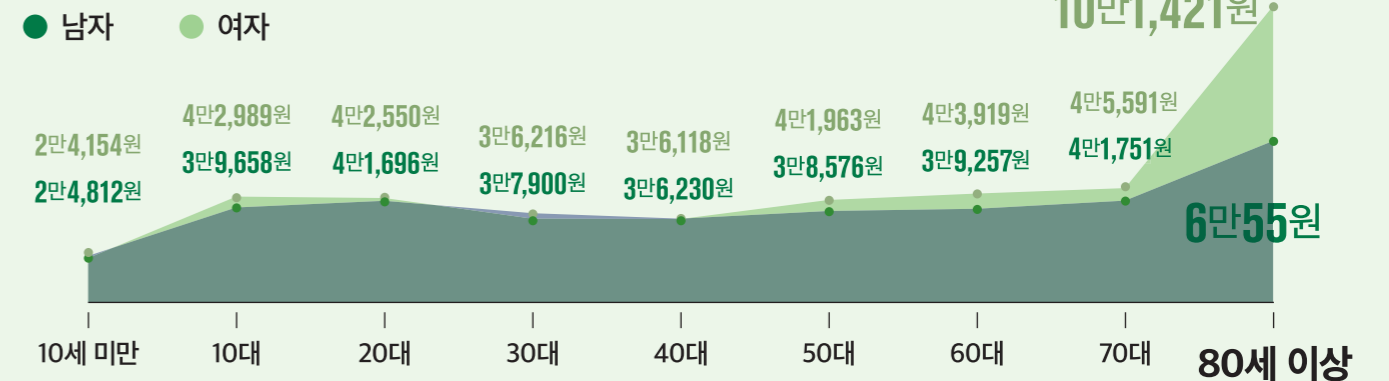
위염 및 십이지장염 4.6%
급성인지 만성인지 명시되지 않은 기관지염 5.7%



5 2020년 총 진료비용(청구건당 평균 진료비용)

1,184억 8,154만 9,000원 (4만 2,107원)

6 성·연령별 청구건당 평균 진료비용



7 요양기관종별 청구건당 평균 진료비용



무릎이 시큰할 때, 알고 쓰는 파스

나이가 들수록 시큰해지는 무릎 때문에 파스는 친구가 된다.
파스가 무릎 통증을 제거하는 근본적인 치료제가 될 수는 없다.
하지만 붙이자마자 느껴지는 시원함과 증상이 누그러지는 듯한 느낌은 확실한 만족감을 준다.
상비약으로 쓸모 있는 파스, 어디까지 의지해야 할까.
파스의 사용법과, 나아가 무릎관절염을 완화하기 위한 근본적인 일상생활 요법을 알아본다.



글: 정구황(바른세상병원 원장)

무릎관절염의 자가치료로 자주 찾는 파스

퇴행성 관절염은 관절을 보호하고 있는 연골이나 관절을 이루는 뼈와 인대 등에 손상이 일어나 염증과 통증이 생기는 질환이다. 일반적으로 걷거나 서 있을 때 체중의 75~90%가 실리는 무릎은 관절염에 가장 취약한 부분이다. 그런데 연골은 통증 세포가 없어 다 닳아 뼈끼리 부딪힐 때까지 통증을 못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아프다 말다 반복되는 무릎 통증을 그저 노화에 의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여겨 방치하거나 통증 완화를 위해 파스를 붙이거나 무릎 보호대를 차는 등 단순히 자가 치료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약국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고, 어느 집이나 상비약으로 하나쯤 가지고 있는 파스, 무릎 통증에 효과가 있을까?

파스의 효능

파스는 소염·진통 효과가 있는 약물을 피부에 스며들게 하는 삼투압 원리를 이용하며, 가벼운 관절 통증에 효과적이다. 하지만 이는 통증을 잠시 완화하는 역할만 할 뿐, 질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건 아니다. 따라서 파스를 환자의 통증 정도나 질환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파스는 가벼운 타박상, 염좌로 인한 발열과 부종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으며 쿨파스와 핫파스로 나뉜다.
쿨파스는 조직 내 염증으로 인한 열을 식혀주고 수축시키는 효과가 있어, 주로 타박상에 의한 염좌, 부종으로 인한 통증을 완화시킨다. 반면 핫파스는 캡사이신 성분이 통증 부위를 자극해 열이 나게 하는데 이는 뭉친 근육을 풀고 혈액순환을

돕는다.

또한, 파스 형태는 부착형, 스프레이형, 젤형 등으로 다양한데, 성분이 같은 제품이라도 상황에 적합한 제형의 제품을 골라 쓰는 것이 좋다. 흔히 쓰는 부착형 파스의 경우, 피부에 붙은 채 약물이 서서히 흡수되기 때문에 약효가 오래 지속된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피부가 민감하거나 피부 질환이 있는 부위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스프레이형은 분사 즉시 약물이 피부에 흡수되기 때문에, 활동량이 많은 사람의 경우 수시로 뿌려주는 것이 좋다. 사용 시 피부로부터 10cm 이상 떨어진 곳에서 3초 이내로 뿌려야 화상을 막을 수 있다. 젤이나 크림형의 파스를 통증 부위에 바르면 해당 부위에 마사지 효과도 함께 볼 수 있다. 하지만 옷이나 땀, 물 등에 쉽게 지워질 수 있으므로 1일 3~4회 정도 발라야 약효가 있고, 활동량이 적은 저녁시간에 사용하는 것이 좋다.

잘못된 습관 개선이 우선되어야

평소 잘못된 자세는 무릎 관절 질환 발병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무릎에 지나치게 하중이 집중되면 연골이나 인대, 힘줄 등이 빠르게 마모되어, 비교적 이른 나이에도 퇴행성 관절염, 무릎 연골연화증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무릎 건강을 위해서는 잘못된 생활습관이나 자세부터 바꾸는 것이 좋다.



또한, 평소 좌식생활을 했다면 테이블이나 의자 등을 이용한 입식으로 바꾸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해주어야 한다. 근육은 인대와 함께 뼈대를 지탱하는 역할을 하는데, 근육이 뼈와 인대를 한 번 더 둘러싸 충격을 흡수하고 단단히 지지해 주고 있다. 근육이 감소하면 관절 통증이 심해지는데, 이는 약해진 근육이 관절에 전달되는 무게를 부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절 주변의 근력 강화는 관절 통증을 감소시키고 관절이 튼튼해지는 효과도 있다.

노년이라면 근력운동, 꼭 필요해

노년층의 경우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해주는 것만으로도 근력운동 효과를 볼 수 있다. 몸에 전체적으로 근력이 없는 상태라면, 하체 근력 운동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 하체에는 몸 전체 근육의 70%가 몰려 있어 근력운동 효과가 좋고, 근육량을 늘리기 쉽기 때문이다.
하체 중 가장 큰 근육인 엉덩이와 허벅지 근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스쿼트와 런지 같은 운동이 효과적이는데, 고령의 경우 하프스쿼트나 의자나 식탁 등을 붙잡은 상태에서 스쿼트를 하는 것이 좋다. 만약 근력이 약하다면 의자에 앉아 발목에 물병이나 무게가 있는 물건을 올려두고 버티는 등의 간단한 운동이나 하지거상운동 등을 하는 것도 근육량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운동은 주 3회, 한 시간 정도 꾸준히 하는 게 좋고, 운동 후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도 근력 강화에 효과적이다.





나와 내 가족이, 치매와 함께하는 여로



알츠하이머병

신록의 5월, 어버이 달을 맞이하여 우리들 인생의 선배인 어르신들을 생각해 본다.
평균수명 증가로 치매라는 인생의 파도를 겪게 되는 상황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예기치 않은 파도에 휩쓸린 치매 환자, 그리고 그 주변에서 가장 중요한 동반자가 되어야 할 치매 환자의 가족.
이들을 위한 더 크고 단단한 울타리가 필요하다.



글. 이성희 한국치매가족협회 회장

예기치 않았던 인생의 파도, 치매

누구나 풍요로운 인생의 마지막에는 의미 있는 삶을 영위하고자 한다. 또한, 자식에게는 짐이 되고 싶지 않은 바람을 가진다. 하지만 치매의 풍랑에 휩쓸리면서 끝내 이를 이루지 못한 채 노후의 존엄성마저 무너져 내리는 치매와의 여행을 하게 된다. 이따금 치매는 바보스럽거나 스스로의 힘으로 일상을 영위할 수 없다는 편견의 의미가 내포된 채 사용된다. 하지만 치매는 뇌의 질병이라는 의미를 더 크게 갖고 있다. 짧으면 2년, 길면 20년까지 유지되는 치매의 증상은 때때로 그 치료의 시기를 놓치곤 한다. 가족들조차 환자의 불가사의한 행동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초기 증세를 놓친 채, 배회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서야 병원을 찾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가족들 간의 갈등에 대한 상담도 많다. 치매 환자의 주 보호자는 대부분 혼자서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므로, 자신이 앓을 때 누가 대신 환자를 돌보아 드릴 것인가를 걱정하게 된다. 그리고 오랜 수발로 인해 만성적인 질병과 함께, 이 병이 언제까지 계속 될 것인지 불안해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기도 한다. 환자와 환자 보호자가 모두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 치료나 돌봄을 포기하는 상황이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경우 성년후견인 제도를 활용하여 치매가 걸려도 자신이 오랫동안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구축해 나가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가까운 동반자, 보호자

가족 간 만남의 횟수가 적은 가족일수록 환자의 증상을 납득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린다. 이때 환자의 증상을 일상적으로 겪지 않다보니 증상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고, 자신이 존경하는 부모의 치매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도 있어 더욱 시간이 소요된다. 이러한 현상은 치매환자의 심리 중 가장 잘 해주는 사람에게 마음 놓고 가장 많은 문제행동을 보이는 '출현 강도의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다. 또한 환자 본인이 해놓고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는 '자기유리의 법칙'으로 인한 증상이며, 모든 것을 뇌의 질병으로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 치매는 초기 진단을 받았을 때부터 가족들이 어린아이들까지 역할 분담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주 보호자가 제2의 환자가 되지 않으려면 치매를 부정하고 화를 내기 보다는, 병으로 인식하고 한 발자국 떨어져서 환자의 심리와 행동을

관찰하며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환자 본인이 16살이라고 한다면, 부를 때 어머니가 아니라 아가씨라고 불러드려야 하며, 과거에 살고 있는 환자의 세계와 현재 세계 간의 차이를 느끼지 않도록 연극하듯이 대해 드려야 한다. 이밖에도 요즘은 65세 이전의 초기 치매환자가 증가하고, 특히 루이소체 치매, 파킨슨 등의 치매환자가 많아지고 있다. 각 질환에 따라 치매 증상과 대응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 더욱이 치매 전문인력 양성과 그에 맞는 환경을 정비하는 것도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보호자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의 가치는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에 의해 결정된다는 말이 있다. 치매환자를 대할 때에는 환자의 말이나 신호를 경청하고, 평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수용하며, 거침없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환자의 페이스에 맞춰가며 공감하는 생활을 한다면 서로의 스트레스도 경감되고 환자의 문제행동을 이해하게 되어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치매환자와 함께 하는 여정은 치매의 이해와 인간존중을 실천하는 영국의 Person-Centered Care와 같이 자신의 욕구를 표현할 수 없는 치매환자의 질 높은 돌봄을 하는데 참고가 된다. 치매돌봄은 두려움을 가지지 않고 애정을 가지고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COPD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만성폐쇄성폐질환 적정성 평가 결과 (2019년), 6차



평가개요

COPD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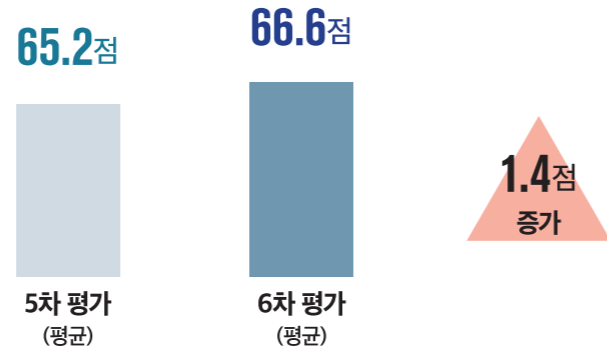
COPD는 2019년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유병률이 25.6%이며, 2017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입원율은 OECD 평균보다 5.9명 더 높은 182.1명임. COPD는 외래 민감성 질환이므로, 효과적인 외래 치료를 받을 경우 중증으로의 이환을 줄이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제고할 수 있음

평가 개요

- 대상기간 : 2019년 5월 ~ 2020년 4월(12개월 진료분)
 - ※ 5차: 2018년 5월~2019년 4월
- 대상기관 : COPD(J43~J44, 단, J43.0은 제외)를 주 또는 제1부상병으로, 외래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발생한 요양기관*
 -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의료원
 - ※ 제외기관 : 치과 병의원, 한방 병의원, 조산원, 보건진료소 및 평가 대상 기간 동안 폐업한 기관, 의약분업 예외기관
- 대상자 : 평가대상 기간 중 COPD를 주 또는 제1부상병으로 해당 요양기관을 이용한 만 40세 이상 환자(건강보험, 의료급여, 보훈)로서, 1) COPD약을 사용한 외래 진료가 2회 이상인 환자 또는 2) 전신스테로이드를 사용한 입원 진료와 있고, COPD약을 사용한 외래 진료와 있는 환자
- 대상자료 : COPD를 주 또는 제1부상병으로 COPD 평가대상 약제가 원외 처방된 외래 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로서, 대상 기간 종료 후 3개월까지 심사결정이 완료된 청구명세서
- 평가기준 : 평가지표 3개, 모니터링지표 7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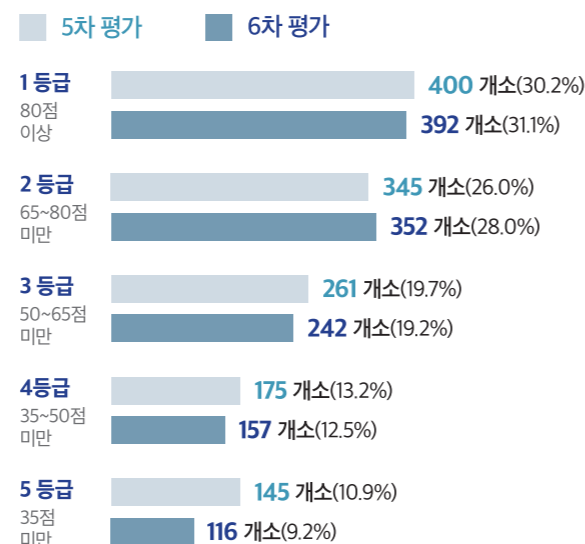
평가결과(요약)

종합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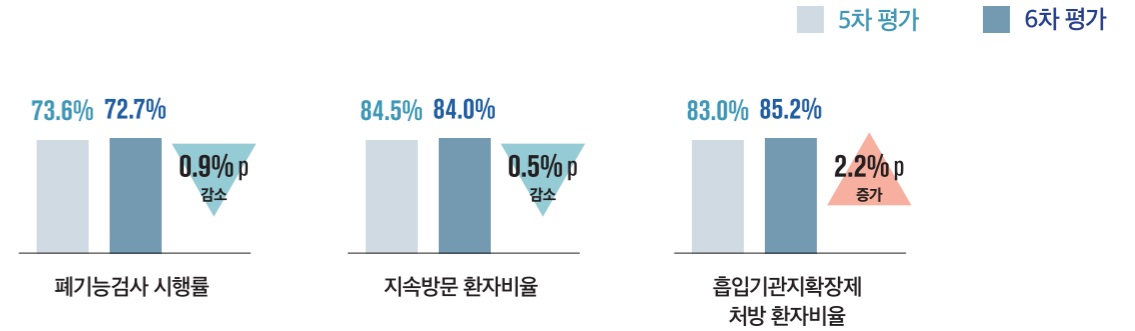


※ 평가대상 : COPD 평가 대상자 수가 10명 이상이면서, 검사·치료 지속성·처방 영역의 평가결과가 모두 산출되는 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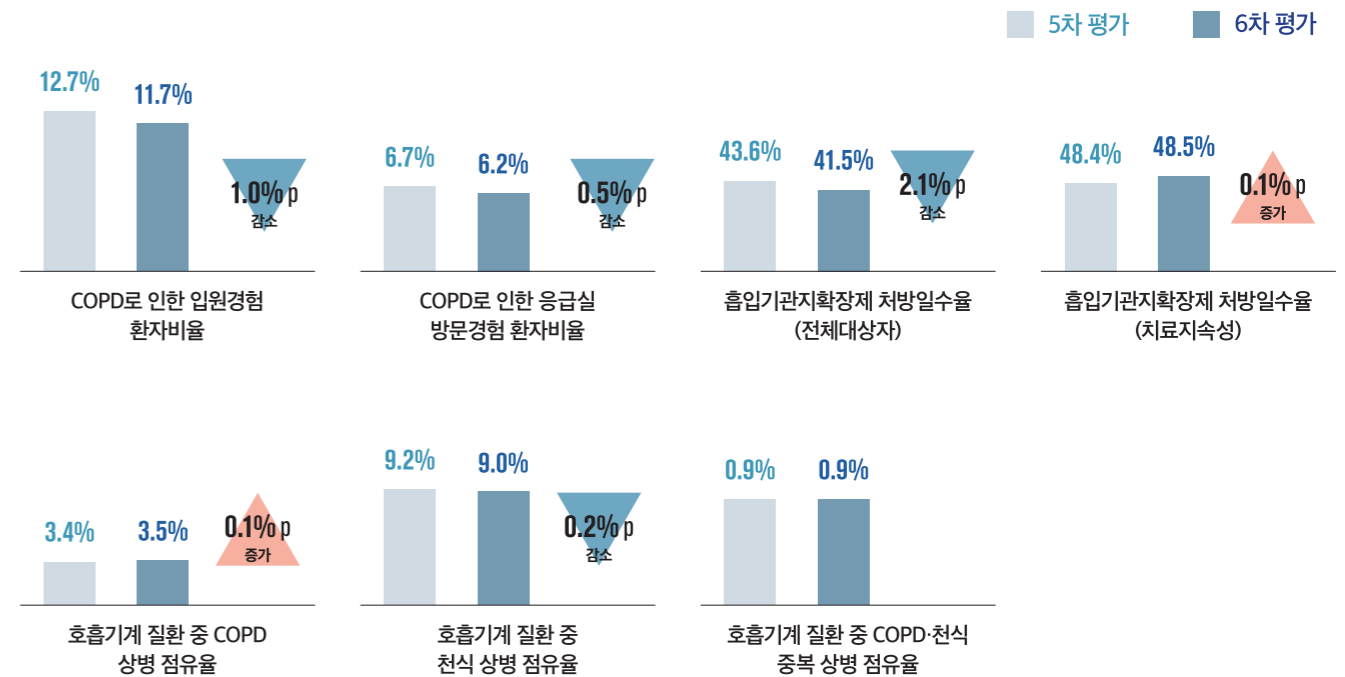
평가등급 현황



평가지표별 결과



모니터링 지표별 결과



우리 동네에서 "COPD" 치료를 잘 하는 병원은 어디 있나?

'병원평가정보'는 수술, 질병, 약제 사용 등 병원의 의료서비스를 의·약학적 측면과 비용효과적 측면에서 평가한 결과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 > 병원·약국 > 병원평가정보를 클릭하면 우리 동네 병원의 COPD 관련 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문성으로 무장한 우리동네 주치의

SG삼성조은병원 박형석 원장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은 만성적 염증에서 비롯해 기류가 원활히 이행되지 않고 기침 등 증상이 만성화되는 질환이다.

환자와 보호자의 삶의 질을 현격히 저하시키는 질환인 만큼, 천안·아산 지역의 COPD 적정성 평가 1등급을 보유한 SG삼성조은병원은 COPD 환자들에게 가장 믿음직한 동반자가 되고 있다.

글. 이현아 사진. 헬리오포토 스튜디오

삶의 질을 떨어트리는 COPD, 우리 지역 믿고 찾는 병원

COPD는 질 나쁜 공기에 장시간 노출돼 폐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는 질환이다. 과거에는 흡연 등이 주요한 원인으로 취급되었지만 최근에는 미세먼지, 실내 이산화탄소 등 다양한 원인이 거론되고 있다. COPD는 질환이 심화될수록 호흡 곤란, 잦은 기침 등이 만성화되며, 뜻하지 않은 상황에서 발작적인 호흡 곤란이나 기침 등이 발생해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COPD가 근본적으로 삶의 질을 떨어트리는 이유는 다른 질환과 비교했을 때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고 생존의 기분이 되는 호흡이 힘들기 때문이다.

COPD는 세계적인 기후 문제와 함께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는 질병으로, 2019년 전세계 사망 원인 3위를 차지했다. 같은 해 국내에서도 천식과 COPD의 40대 이상 유병률이 12.7%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다행히 COPD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이를 치료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인지도도 제고되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4월 천식과 COPD의 적정성 평가결과를 공개하며 “COPD 1등급 기관의 비율이 2018년과 2019년 사이 0.9% 증가했다”고 밝혔다.

2021년 현재 천안 지역에는 총 7개의 COPD 적정성 평가 1등급





의료기관이 있다. 그중에는 단국대병원,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등 병원도 포함돼 있다. SG삼성조은병원도 2019년 처음 1등급을 획득한 이래 꾸준한 관리와 의료 질 개선으로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COPD와 관련해 외래 수간호사 등 10여 명의 직원과 폐기능 검사를 담당하는 5명의 임상병리사가 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COPD 환자를 위해 ‘호흡근 강화를 위한 1일 걷기 운동 프로그램’, ‘금연교육 및 금연치료 연계 프로그램’들을 운영해 호평을 받고 있다. COPD 환자의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산소투여장치 및 호흡기 치료장비는 SG삼성조은병원이 COPD 적정성 평가 1등급을 받을 수 있었던 주요한 요소 중 하나다. 사실 SG삼성조은병원은 COPD를 전면에 내세운 전문병원이다. 그럼에도 COPD 적정성 평가 1등급 의료기관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기관에서 구축하고 있는 모든 의료시스템과 서비스에 대해 최상의 질을 유지하겠다는 임직원들의 의지가 크게 작용했다.

적정성 평가 1등급의 노하우

적정성 평가 시스템 도입 초기 SG삼성조은병원이 중소병원의 입지에도 불구하고 1등급을 받을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박형석 원장은 몇가지 중점 과제를 소개했다.

“COPD는 적절한 호흡기 검사를 할 수 있는가가 무척 중요합니다. SG삼성조은병원은 검진기관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만큼 탁월한 호흡기검사 장비를 갖추고 있고, 전문적으로 검사에 임할 수 있는 임상병리사가 있습니다. 전문성이 갖춰진 장비와 인력은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산출합니다.”

박형석 원장은 또 의료기관과 환자의 관계를 강조했다. “환자와의 지속적인 관계를 유도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시스템도 중요합니다. SG삼성조은병원은 외래시스템 전반에서 정확한 내원 유도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COPD 진료의 특성상 1회의 처방으로도 증상이 호전되는 듯한 느낌에 환자가 차기 내원을 미루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는 치료의 질을 떨어트리는 요인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환자의 니즈 파악도 필요합니다. COPD는 분말, 스프레이, 1일 다회용 호흡기 등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노인 환자는 상대적으로 들이마시는 힘이 약해 스프레이형 호흡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차이를 빠르게 캐치함으로써 환자와의 관계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죠.”

“평가 1등급은 지역사회 행복구현이라는 미션의 일환”

박형석 원장은 같은 지역에서 오랜 기간 동안 내과를 운영한 지역 토박이다. 지역 내 환자를 다수 경험하면서 병원 규모를 확장시켜온 만큼, 환자에 대한 이해와 이를 어떻게 시스템에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동기가 부여돼 왔다. SG삼성조은병원은 지난 2017년 152개 병상으로 개원했다. 지역에서 오랜 시간 동안 환자와 만나 온 박형석 원장이 ‘지역사회와 구성원들의 행복 구현’이라는 미션 아래 내과, 재활의학과, 신경과, 가정의학과, 영상의학과 등을 편성해 개원한 것이다.

SG삼성조은병원은 인플루엔자 접종병원이자 금연치료 지정병원이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이후에는 천안 지역 10여 개의 코로나19 지정병원 중 하나로서 백신 접종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이에 대응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단순히 하나의 평가등급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역민에 기여하는 병원으로서 운영에 만전을 기하다보니 자연스럽게 COPD 적정성 평가에 있어서도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SG삼성조은병원은 사실 지역 내에서 COPD 치료 전문 병원보다는 재활치료 전문기관의 이미지가 더 강하다. 2020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재활의료기관 인증을 받기도 했다. 체계적인 검진시스템을 갖춘 의료기관으로서 환자의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환자가 안정적으로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재활 치료를 실시하고 있다. COPD는 면밀한 검진장비를 통해 발견되고, 시민의 가까이에서 꾸준히 관리돼야 하는 질환이라는 점에서 SG삼성조은병원의 또 하나의 미션이 되고 있다.

“이 병원에서 일반 검진을 통해 COPD가 의심되고 진료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환자가 존재하는 만큼 정확하고 효율적인 치료를 고민해야 하죠. 환자가 대기시간을 지루하지 않게 보낼 수 있도록 추가적인 검사를 받게 하거나, 금연치료를 받게 하는 등 꾸준히 고민하고 있어요.”

COPD 진료를 위한 전 과정에는 임직원 모두의 팀플레이가 적절히 작용하고 있다. 박형석 원장은 임직원들의 유기적인 관계를 강조했다.

“병원장 이하 모든 진료부에서 COPD 진료를 실시하고 심사팀과 외래 간호팀이 주기적으로 COPD 내원환자의 내원기록을



점검하며 지속적으로 내원할 수 있도록 안내하죠. 누구 한 명의 책임이 아닌 임직원 모두의 유기적인 관계 아래 COPD 치료가 이뤄진다는 점이 우리 병원의 특징적인 것 같아요.”

COPD 뿐 아니라 모든 질환과 프로그램이 같은 철학 아래 가동된다. 지역민의 의료시스템을 고민하는 병원으로서 이처럼 주요한 질병의 대응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COPD가 지역적인 특성을 보이는 질환인지는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다만, 이 지역에서 오래 진료를 보고 있는 의료인의 입장에서, 예전보다 더 많은 호흡기 질환 환자가 병원을 찾는다고 느껴지기는 합니다. 지역에 들어선 산업공단이나 변화한 환경적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형석 원장은 지역 내 COPD 환자 추이에 관심을 두며, 이에 대응하는 시스템의 질이 유지되도록 노력한다.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받는 안정적인 진료체계 안에서 환자의 증상이 개선되기를 바라고 때문이다.

Mini Interview

임** 님(47세)

20여 년 간 흡연을 해온 환자입니다. 30대까지는 몰랐는데 40대가 넘어가니 어느 날 숨 쉬는 게 힘들어 지더군요. 별 생각 없이 잠깐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럴겠지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기침과 가래가 심해지고 증상이 자주 생기더군요. 마침 집 앞에 있는 SG삼성조은병원에 가서 박형석 원장님께 진료를 받았는데 COPD가 의심된다 하여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았습니다. 역시 결론은 저의 폐 상태가 점점 망가지고 있다는 거였어요. 바로 금연을 권하셔서 치료와 함께 금연을 시작했습니다. 기관지 확장제와 약도 처방 받아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정도 치료를 지속하니 점차 호흡이 편해지더라고요. 앞으로 이렇게 숨 쉬는 고통을 느끼며 살아야 한다는 게 우울하지만, 하루빨리 진단받고 금연과 치료를 시작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전에도 건강보험 적용 받을 수 있다!



■ 개요

- 2015년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미혼부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가정법원의 확인으로 자녀의 출생신고가 가능해졌습니다.
- 그러나 실질적으로 법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가 쉽지 않으며, 이 경우 출생자녀가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등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됩니다
- 이에, 2020년 9월, 출생신고를 완료하지 못해도 미혼부가 건강보험 가입자일 경우 미혼부 자녀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미혼부 자녀 건강보험 적용 안내

- 자녀의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미혼부는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여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전 지사 가능)
 ※ 최초에는 방문신고 해야 하며, 이후 재신고 시에는 방문 및 전화 가능
 ※ 미혼부 본인신청만 가능(본인 외 대리신청 불가)

제출서류

- ①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변동신고서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신고서
- ② 친생자 출생신고확인신청서(소장사본)
- ③ 유전자검사결과

신청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지사 ☎1577-1000



「2021년(3차) 환자경험평가」 안내

더 좋은 의료문화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환자경험 평가

문의: 평가실 평가부 김지혜 팀장 ☎ 033-739-4532





극심한 환경 변화 속에서 선불리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코로나19 시대.
하지만 건강보험만큼은 국민을 보호하고 돕는 최후의 보루가 되어 하기에,
오늘도 앞날을 준비하는 급여제도연구실이 있다.
박춘선 급여제도연구실장과 함께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급여제도와
의료서비스의 질 관리 방향에 대해 들어보았다.

글. 이현아 사진. 헬리오포토 스튜디오 영상. 김지혜

예측할 수 없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급여제도연구실을 만나다

유튜브 '박민수 TV' 박민수 원장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제도연구실 박춘선 실장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인터뷰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박민수 TV'
박민수 원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제도연구실
박춘선 실장



미래의 건강보험제도를 준비하는 급여제도연구실

● **박민수 원장** : 오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박춘선 급여제도연구실장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하게 된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민수 원장입니다.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유연하고 치밀한 준비를 하는 조직이 급여제도연구실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 **박춘선 실장** : 전통적인 입장에서, 의료서비스라는 것은 국가 의료시스템 안에서 의사와 환자가 주연 역할을 하는 영화와 같지 않습니까. 의료보장시스템은 그런 영화가 잘 완성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사실 앞으로의 변화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어요. 특히 코로나19 이후의 변화는 완전한 회복이 아닐 것이고, 그 변화라는 것조차 어느 한 방향일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 급여제도 역시 어떻게 변할지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런 상황에서 (건강보험의 대상이) 어떤

니즈를 갖고 있는지 찾아내고, 그에 맞는 급여방식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것이 우리(조직이)가 하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박민수 원장** : 저는 지역에서 만성질환자를 진료하는데, 팬데믹 시대의 만성질환자는 사회적 취약계층 혹은 건강 약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만성질환 등 질환관리에 관한 부분들이 지역사회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지 않나 하는 느낌이 듭니다. 만성질환자 관리가 지역사회 중심으로 변하는 데는 어떤 이유나 배경이 있을까요.

✕ **박춘선 실장** : 아마도 두 가지 정도 원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새집보다는 원래 살던 집이 신체나 정신건강에 더 좋잖아요. 우리사회는 아마 2050년이 되면 65세 인구가 40% 이상이 될텐데 이는 일본보다 높은 수준이에요. 고령인구가 늘 것을 대비하면 새로운 시설보다 내가 살고 있는 집, 그러니까 지역사회가 이들의 건강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팬데믹이 있습니다.

팬데믹을 겪으면서 우리가 모두 절실히 느낀 것이 바로 “내 지역에서 건강을 지켜야 그게 국민의 건강이고 나라의 건강이구나”라는 것이에요. 지역사회는 우리사회가 고령화 되는 것 뿐 아니라 팬데믹에 대비하기 위한 중요한 보루입니다.

☉ **박민수 원장** : 코로나19 초기만 하더라도 어르신들, 65세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진 분들이 병원에 잘 안 왔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 이분들의 방문이 늘었어요. 거기에는 ‘자신의 건강을 더 잘 지켜야겠다’, ‘면역력을 더 잘 지켜야겠다’ 하는 생각이 있는 거죠. 지금 지역사회 중심의 노인이나 취약계층을 위한 관리체계와 관련해서 특별히 더 진행되는 연구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 **박춘선 실장** : 지역사회의 일차의료 활성화는 모두가 공감하는 과제입니다. 현재까지 일차의료기관의 만성질환 관리는 굉장히 질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원장님도 아시겠지만 만성질환에 있어 고혈압인 환자가 당뇨도 있고, 고지혈증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때문에 질환 중심의 접근이 아닌 환자 중심의 건강관리가 필요한 시점인데요. 지역사회나 주민 중심의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 모델을 만들어보고 이 모델 안에서 어떻게 보상이 이뤄져야 할까를 올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료 질 평가 기준의 변화를 모색하다

☉ **박민수 원장** : 수가체계 수립 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료기관의 의료 질을 평가하는 기준이 명확해야 할 겁니다. 의료 질 평가체계 개선에는 최근 어떤 이슈가 있나요.

✕ **박춘선 실장** :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진료결과 중심의 질 평가입니다. 지난 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 국민들이 ‘치명률’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었어요. 치명률이야말로 대표적인 진료결과 항목입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인구당 사망률에는 의료서비스 외에도 유병률, 생활습관, 환경, 주택문제, 경제사정 등이 포괄적으로 영향을 미치죠. 그런데 치명률은 같은 질환에 걸린 환자 중 사망한 데이터를 산출해, 의료의 질에 있어 굉장히 직접적인 지표입니다. 환자들이 병원을 찾을 때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이, 내가 언제 나올까, 어떻게 잘 나올까, 합병증은 얼마나 남을 수 있고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나 그런 것들이잖아요. 이런 면에서 의료의 질을 진료결과 위주로 평가한다면 조금 더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산출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또 하나는 의료기관의 자발적인

“ 필요가 있는 곳을 찾고 그곳의 니즈를 파악해 적용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사회갈등의 소지를 줄여나가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

참여입니다. 마침 2~3년 전부터 의료기관들이 자발적으로 진료성과를 측정해서 공개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기 시작했어요.

☉ **박민수 원장** : 아, QA(의료기관 평가인증) 그거 인증 받는 거죠.

✕ **박춘선 실장** : 인증도 받고 우리 병원 수술성적이 어떤지, 합병증 발생률이 어떤지와 같은 데이터를 공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흐름은 의료기관 스스로 질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이며, 심사평가원은 이를 지원할 방안을 만들려고 합니다.

☉ **박민수 원장** : 좋은 방향이네요.

코로나19로 달라진 세상, 새로운 역할 요구돼

☉ **박민수 원장** : 다소 철학적인 질문일 수 있지만, 코로나19 이후 급여라는 부분, 혹은 건강보험 자체가 국민을 지켜주는 부분에 있어 어떤 역할의 변화가 있을까요?

✕ **박춘선 실장** : 어떻게 보면 심사평가원 모두에 해당하는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과거 우리는 평균지향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평균만이 아니라 ‘아웃라이어(outlier)’도 돌아봐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격차를 줄여야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험급여 그리고 심사평가원의 역할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모든 것을 일시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구현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오히려 (의료보장제도가) 필요한 부분을 찾아내고, 그 부분에서 요구되는 니즈에 맞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것, 이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 **박민수 원장** : 그런데 요양급여라는 것이 한정된 재화를 잘 사용하면서 변화하는 시대에 대응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급여제도연구실은 의료계와 정부 간 입장격차를 줄여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급여제도연구실에서 급여나 급여비용 관련 이슈를 다루면서 가장 힘들게 다가오는 부분, 또 반대로 보람을 느끼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 **박춘선 실장** : 새로운 일을 하다보니 조직 안의 동료들과 공감하는 데에도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요. 조직 내에서만 아니라 외부의 이해당사자와도 새로운 일에 대한 요구심과 불확실성을 공감해야 한다는 것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만, 우리 조직은 일시에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삼아 한꺼번에 적용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필요가 있는 곳을 찾고 그곳의 니즈를 파악해 적용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사회갈등의 소지를 줄여나가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과거의 접근 방법과는 달라진 그런 점이 제게는 나름의 위안입니다. 또 제 개인적으로는 입사 후 지금까지 같은 일을 한 해가 없었는데요. 비록 제 키는 다 자랐지만, 제 자신은 계속 성장하고 있다고 체감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보람이 아닐까 합니다.

☉ **박민수 원장** : 오늘 쉽지 않은 주제로 말씀 나눴습니다. 코로나19라는 커다란 변화 속에서 급여제도연구실은 어떻게 보면 꽤 굵은 일을 담당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변화의 지향점을 제시하는 조직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다가오는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 자체가 엄청난 만큼, 역동성과 유연성을 겸비한 체계적인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 **박춘선 실장** : 감사합니다. 기대에 부응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음을 드립니다 꽃바구니 만들기 체험

가정의 달 5월, 사택에 사는 동료는 또 하나의 가족이다. 심사운영실 내과심사2부의 임경란, 김예지, 이수린 대리는 2018년 겨울에 함께 입사한 입사 동기이자 사택에 함께 살고 있는 이웃사촌이다. 4월의 마지막 주 어느 날, 이들은 특별한 체험에 도전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서로의 부모님께 감사와 사랑의 꽃바구니를 직접 만들어 전하기로 한 것이다. 마냥 설레고 들뜬 특별한 외출을 취재했다.

글. 이현아 사진. 헬리오포토 스튜디오 영상. 김지혜

꽃바구니에 마음을 담아요

지난 연말 원주 기업도시에 문을 연 카멜리아 플라워 스튜디오는 작고 소중한 동네 꽃집으로 오가는 이들의 눈도장을 받고 있다. 서울에서 활동하던 홍성운 플로리스트가 결혼과 함께 마련한 향기로운 보금자리다. 4월 마지막 주, 입사 동기인 심사운영실 내과심사2부 3명의 직원이 이곳을 찾았다. 꽃바구니 만들기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한 이들은 이날 만든 꽃바구니를 서로의 부모님께 전하기로 했다. 평소 사택에 모여 살며 각별한 동기애로 똘똘 뭉친 이들에게 서로의 부모님은 또 다른 애뜻한 느낌으로 다가온다. 코로나19로 야외활동을 못한 지 오래인 요즘, 이날의 클래스가 그들에게 더욱 특별한 이유다. “평소 사택에서 지내다보면 각자 집에서 보내주신 반찬이나

※ 본 체험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지역 소상공인 자활 지원을 통한 지역사회 상생을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 본 취재의 촬영은 철저한 방역지침 아래 진행되었습니다.



“각자의 본가에서 보내주신 반찬을 나눠먹으며 더 가족같이 지내고 있어요. 친자매처럼 좋은 언니, 동생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마음, 이 꽃바구니에 담아 드리고 싶어요.”
심사운영실 내과심사2부
임경란 대리

“평소 수국을 좋아해요. 오늘은 가정의 달이라는 의미도 있으니까 카네이션을 사용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사실 어떤 꽃이라도 재미있는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심사운영실 내과심사2부
이수린 대리

“코로나19 이전에는 한강에 가서 카약도 타고, 전기도 보러 갔었죠. 요즘은 사택에서만 시간을 보내곤 했는데, 오늘 체험이 또 하나의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요.”
심사운영실 내과심사2부
김예지 대리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인터뷰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식재료를 나눠 먹곤 해요. 그렇게 지내다보니 동기들뿐 아니라 그 어머님들께 감사하고 애뜻한 마음을 갖게 되죠. 친자매처럼 좋은 언니, 동생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걸 실제로 전해드릴 기회는 많이 없었어요. 오늘 체험을 신청하면서 서로의 부모님께 드리기로 했어요. 더 특별하고 소중한 경험이 될 것 같아서요.” 임경란 대리가 대표로 신청해 참여하게 된 이번 체험은 본인의 가족이 아닌 서로의 부모님께 전하는 마음을 담는다는 점에서 더욱 특별한 체험이다. “저희가 입사동기예요. 지금은 사택에서 같이 살고 있어요. 코로나19 전에는 함께 한강에서 카약을 타거나 전시회에 가기도 했어요. 많은 추억들이 있는데,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밥을 먹어도 사택에서, 수다를 떨어도 사택에서... 사택에서만 시간을 보내는 것이 너무 아쉬웠어요. 오늘은 모처럼 함께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라 더 들뜨고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김예지 대리는 소녀처럼 들뜬 마음을 표현했다. 다른 이들에게도 이날의 외출이 특별하기는 마찬가지다.

코로나19 시국에 만나 더욱 특별한 하루

꽃바구니 만들기 클래스는 보통 약 한 시간에 걸쳐 진행된다.



평소 외부 클래스가 많은 홍성운 대표는 이날 방문한 이들을 위해 기꺼이 오후 시간을 할애했다. 원주시에는 지금도 새로운 시가지가 형성 중이다. 스튜디오가 있는 건물에도 크고 작은 가게들이 하나씩 자리를 잡으며 기지개를 펴고 있다.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저는 운 좋게 개업 이후 꾸준하게 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원래 공방 개념으로 스튜디오를 오픈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들러 꽃구경도 하시고 꽃을 살 수 없는지 문의도 하세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종류의 꽃을 가져다 놓고 있어요.”

꽃이 시들 때까지 남지 않도록 소량의 꽃만을 가져다 놓다 보니 품이 많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시대에 꽃이 주는 위안의 의미를 알기에 홍성운 대표는 꽃에 들이는 품을

마다하지 않는다. 이날 체험에도 역시 홍 대표가 손수 발품을 팔아 들여온 콜롬비아산 카네이션이 쓰였다.

작은 재료마저도 너무 소중해

3명의 입사 동기는 이날 카네이션, 리시안셔스, 시레네 등과 함께, 한창 초록이 짙어진 소재료를 이용해 꽃바구니를 만들었다. 꽃바구니는 바구니 바닥에 꽃을 꽂을 수 있는 폼플라워를 깔고 주재료가 되는 꽃들을 다듬어 꽂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홍성운 대표는 초심자들이 주제가 되는 꽃에 매료돼 소재료를 쉽게 소홀히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실제로 꽃바구니를 만들다 보면 정말로 중요한 것이 소재료임을 알 수 있다. 소소하게 지나가는 하루하루가 마침내 의미있는 날들을 이루는 것처럼 말이다.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부터는 선불리 외부 활동을 할 수 없어서 사택에 머무는 시간이 많았는데, 지역에 이런 공방들이 있는지 몰랐어요. 오늘 체험을 해보니까 무척 의미가 있고 재미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서울보다는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점도 놀라웠어요. 동료들에게도 많이 소개해 주고 싶은 클래스예요.”

김예지 대리는 이날 클래스를 통해 회사와 사택이 소재한 지역에서 더욱 다양한 체험을 해볼 수 있었다는 것이 뜻깊었다고 설명했다.

임신 6개월을 넘긴 이수린 대리는 요즘 심신을 안정하며 곧 만나게 될 아기를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 이날 꽃바구니 만들기는 모처럼 동료들과 즐겁게 이야기하며, 또 한편으로는 향기로운 꽃에 둘러싸인 행복한 시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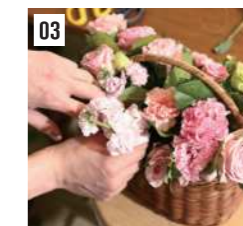
꽃바구니 만들기



1. 바구니 및 장식할 꽃과 소재 등을 준비한다. 필요한 기물로는 꽃가위, 가시 제거기 등이 있다.



2. 방수처리된 폼플라워를 하단에 깔고 와이어로 고정할 후, 준비한 꽃과 소재들을 다듬어 꽂으며 장식한다.



3. 녹색의 소재들로 전체적인 크기와 형태를 만들어준다.



4. 라인플라워와 매스플라워로 균형감 있게 빈 공간을 메꿔준다.

카멜리아 플라워 스튜디오

꽃바구니 만들기 원데이 클래스와 정규 클래스를 운영한다. 원데이 클래스의 체험 시간은 1시간 내외. 홍성운 대표는 평소 외부 강의가 많아 반드시 사전에 예약 시간을 확인할 것.

주소 강원 원주시 지정면 무릉로 35-1 캐슬더테라스 1층 106호
체험문의 010-8874-5625





공정성과 객관성을 지키는 평가실

의료기관이 어떤 의료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하는가는 의료기관과 환자 모두에게 중요한 정보가 된다. 평가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가장 핵심적이면서도 결코 쉽지 않은 업무를 수행한다.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가 그것이다. 의료기관에는 의료서비스 질 개선을 유도하고, 환자에게는 의료기관 선택 정보를 제공하는 일, 그 중심에 평가실이 있다.

글. 이현아 사진. 헬리오포토 스튜디오

급변하는 의료환경, 가장 믿을만한 의료기관 선택 기준을 제공한다

심사평가원이 운영하는, 국민과 가장 밀접한 사업 중 하나가 바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이하 '적정성 평가')이다. 심사평가원은 2000년 7월, 적정성 평가 업무 시행에 따라 평가실을 신설하여 사업 전반적인 기반을 마련했다. 적정성 평가는 건강보험으로 제공한 의료서비스 전반에 대해 의약학적, 비용효과적 측면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업무이다. 평가의 결과는 의료기관의 자발적인 의료 질 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국민에게 알맞은 의료기관을 찾는 데 도움을 준다. 실제로 병원평가정보를 담은 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과

모바일 앱('건강정보')은 일반 환자들에게 병원을 선택하는 좋은 길잡이가 되어주고 있다. 인터넷이나 모바일에 익숙하지 않은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해 발간한 '우리지역 평가 우수병원 안내서'는 적정성 평가로 도출되는 정보가 사각지대 없이 전달되기를 기대하는 사업 본연의 취지를 짐작할 수 있다. 이렇게 제공되는 건강정보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는 2017년 83.6점에서 2020년 85.9점으로 상승했다. 이는 실제 환자들이 이 같은 정보를 실생활에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적정성 평가업무 시행 원년인 2001년에는

약제급여 3항목, 조혈모세포이식, 사회복지법인 등을 포함 총 5개 항목으로 평가를 시작했다. 그랬던 것이 2004년부터는 의료이용도 중심에서 임상 질 분야로까지 평가영역이 확대됐다. 2007년에는 가감지급 시범사업을 착수해, 2021년 현재 급성기뇌졸중 등 6개 항목이 가감지급 대상이 되고 있다. 2015년에 접어들면서 적정성 평가는 보다 전반적인 의료 질 평가로 발전했다. 2015년 기관 단위 진료결과를 측정하는 일반 질에 대한 평가와 환자경험 평가가 도입되었고, 2016년 이후에는 마취, 치과근관치료, 중소병원, 정신건강입원영역 등 평가항목이 확대돼 평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2021년 현재는 치매평가를 도입하여 총 35개 항목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다. 적정성 평가 도입 20년을 맞이하면서 심사평가원은 2020년 각계 전문가와 의료계, 국민 등이 참여하는 평가발전위원회를 구성했다.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위한 적정성 평가체계 구축 △의료기관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 강화 및 국민중심의 평가정보 제공 △타 평가와 어우러지는 질 관리 수립 및 국민의료계 실질적 참여확대 등이 평가발전위원회가 모색 중인 적정성 평가의 발전방향이다.

코로나19 시대의 적정성 평가

평가2부 이충훈 대리는 최근 국립중앙의료원 내 코로나19 대응 합동본부에서 파견 근무를 한 경험이 있다.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에 입원한 환자들의 중증도 및 현황을 파악하고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입원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그의 주된 임무였다. “외부기관에서 다른 기관의 근무자들과 소통하면서 업무를

“**평가실 5개부 직원은 적정성 평가 항목별로 전문적이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하지만 동일한 목표 의식 아래 이들이 구축하고 있는 유대감은 견고하다.**”

처리해 나가는 것이 낯설고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었지만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조금이나마 기여하고 있다는 점은 남다른 보람이기도 해요.” 평가실은 의료기관이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왔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피로도가 쌓인 의료기관들의 평가시기를 연기하거나 단축함으로써 보다 용이하게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였다. 평가대상 기간이 포함되는 23개 항목 중 14개 항목의 평가대상 기간을 조정하거나 평가기준 변경 및 자료제출 절차가 간소화 됐다. 이는 의료기관 스스로가 평가의 주도적인 주체가 되어, 적정성 평가 사업을 이끌고 가는 하나의 축으로 인식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코로나19라는 새로운 상황에서 비대면 업무방식을 적극 도입해 화상교육, 비대면 콘텐츠 개발 등 평가 프로세스를 정교화 하는 것 또한 평가실의 주요 과제 중 하나다. 이에 따라 평가실은 2021년 2월 현재 설명회, QI교육 등 대면으로 이뤄지던 업무를 전면 비대면으로 전환해 적정성 평가에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들의 안전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사진 왼쪽부터 평가관리부 전숙경 부장, 평가1부 김희남 팀장, 평가2부 이충훈 대리, 평가3부 김엄지 대리



평가1부 김희남 팀장은 “코로나19 시대 의료현장의 환자 안전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심사평가원은 이런 대내외적인 요구에 부합하고자 환자안전 영역의 평가 확대를 중장기 경영목표로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코로나19 시대에 임하는 평가실의 중장기목표를 설명했다. 사회구성원의 정신건강 문제는 코로나19 이후 그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우선 코로나19 장기화로 우울감, 무기력증 등 코로나블루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우울증, 치매 적정성 평가를 도입하여 정신건강영역에 대한 포괄적인 의료 질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2022년 그 결과를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요양병원에서 환자에게 부적절한

약제를 사용하는 사례 등이 확인되어 올해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에 ‘항정신성의약품 처방률’과 ‘최면·진정의약품 처방률’ 등의 지표를 도입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요양병원 퇴원환자의 지역사회 연계 기반을 마련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평가실 5개부 100여 명의 직원은 항목별로 일정 및 주기가 다른 평가실 업무 성격에 따라, 전문적이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하지만 동일한 목표 의식 아래 이들이 구축하고 있는 유대감은 견고하다. 특히 코로나19 시대의 최전선에서 보건의료체계를 확립하고 유지한다는 사명감은 바로 오늘 더욱 빛을 발한다.

Mini Interview

평가실 조미현 실장

Q1. 평소 평가실 업무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객관성’과 ‘공정성’입니다. ‘객관성’은 ‘주관에 좌우되지 않고 언제 누가 보아도 그러하다고 인정되는 성질’이라고 하죠. 이해당사자, 이해관계자 등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평가를 ‘공정’하게 수행하여 의료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평가실의 주된 역할일 것입니다. 올해 평가실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확대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보제공, 국민 접점의 홍보 강화 등 다방면으로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Q2. 평가실 가족들에게 당부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나요.

평가실은 코로나19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의료현장의 부담을 줄이고 적정성 평가를 차질 없이 수행하는데 만전을 기해 왔습니다. 선별진료소 의료봉사를 마다하지 않는 직원들과, 또 동료의 빈 자리를 메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전합니다. 적정성 평가는 과거 20년을 토대로 새로운 20년을 준비하는 변곡점에 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시기를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것이 몹시 기대되고 기쁩니다. 항상 자부심을 가지고 사명감을 다해 업무를 수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사랑이 아이의 상처가 되지 않으려면

세상의 모든 부모는 아이를 사랑한다.
 아이가 위험한 상황이라면 제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다.
 혹여 자식은 부모에게 큰 상처를 받았다고 말해도 그 부모는 그 자식을 사랑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사랑했다.
 그런데 왜 그 사랑이 자식에게 상처가 되었을까?
 '심맹(mind blindness)', 즉 자식의 마음을 보지 못한 채, 사랑할수록 고통을 주기만 하는 그런 사랑을 한 것이다.
 사랑이 상처가 되지 않고, 마음 그대로 닿는 방법은 없을까?
 아이를 키우면서 잊지 말아야 할 사항을 짚어본다.

글: 오은영(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은영 소아청소년클리닉 및 학습발달 연구소 원장, 도서 <어떻게 말해줘야 할까> 저자)



아이의 부모의 소유가 아니다. 생명을 가진 주체적인 존재다. 부모의 사랑이 아이의 상처가 되지 않으려면 언제나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가 아니라 '아이가 무엇을 원할까'를 생각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 아이에게 어떻게 가서 닿을까?'를 고려해야 한다.

선이가 있다고 어떤 행동도 괜찮은 게 아니다

부모는 본능적으로 아이를 사랑한다. 사랑의 크기는 아마 우주만큼 클 것이다. 사랑이 우주만큼 크니까 그 우주에 가끔 돌 하나쯤 던져도 별 일 없을 줄 안다. 아이를 지극정성으로 대했으니 자신이 던지는 작은 돌은 아이가 아무렇지도 않게 흡수해 줄 것이라고 착각한다. 그러다 보면 돌을 막 던지게 된다. 개중에는 살아가면서 용서도 되고, 화해도 하고, 괜찮아지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은 흉터가 되기도 하고 아물지 않는 상처를 만들기도 한다.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고, 때리고, 공부하라고 심한 말을 하면서도 '아이를 위해서'라고 한다. 사랑한다고 어떤 행동도 괜찮은 것은 아니다. 아무리 내 아이라도 좋은 방법을 택하지 않으면 상처받는다.

아이의 감정은 생각이 아닌 감정으로 받는다

부모들은 종종 아이의 감정을 생각으로 본다. 그냥 그런 감정이 든 것인데, 의도를 가지고 한 '생각'으로 바꾼다. 감정을

생각으로 받으면, 아이가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것과 그 생각의 옳고 그름을 따지게 된다. 쓸 데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나누게 된다. 그 생각을 고쳐주려 설명하고 설득한다. 설득이 안 되면 화를 내면서 감정을 고치라고 한다. 이럴 때 아이는 상처받는다. "그런 마음이 들 만큼 많이 힘들었구나"라고 감정은 감정으로 받아야 한다. 그렇게 하면 어떤 감정도 수긍해 줄 수 있다. 그래야 아이의 마음을 따라가 볼 수 있고 아이의 마음을 안아줄 수 있다. 아이의 마음에 상처가 덜 생긴다.

아이는 원래 부모마음 대로 되지 않는다

부모가 아이를 바라볼 때 '내 생각에 너는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것밖에 못 하니', '넌 왜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해도 계속하니', '이렇게 정성을 다해 키웠는데 왜 이 정도도 못 따라와 주니', '이만큼 사랑을 퍼부었으면 바뀌어야 하는 것 아니야' 등의 생각들이 강하게 든다면 그 부모는 자신의 통제적인 면을 걱정해야 한다. 아이가 그 말을 듣지 않아 미칠 것 같다면 그것은 지나친 것이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은 과도한 통제이다. 도덕적인 절대 가치, 사회적인 규칙 등은 반드시 따르도록 가르쳐야 한다. 하지만 생활적인 것들은 계속 잘 가르쳐줄 뿐 아무리 부모라도 완벽하게 내 마음대로 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 과도한 통제는 부모와 아이 관계, 아이의 건강한 정서 발달을 해친다.

전체가 잘못이라도 부분의 타당함은 인정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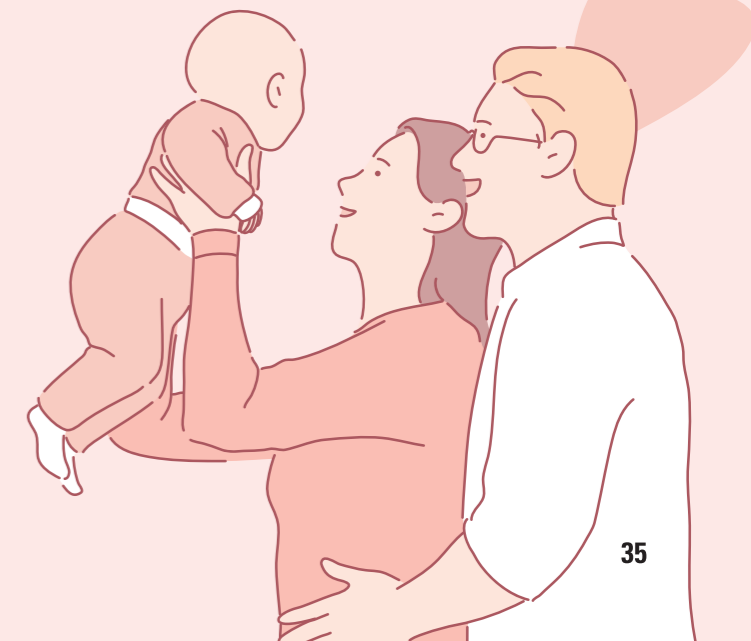
학교 끝나고 바로 학원에 간다고 한 아이가 학원에 30분이나 늦었다. 친한 친구가 휴대전화를 잃어버려서 찾아주다가 늦었다. 이럴 때 많은 부모가 "네 할 일이나 잘 해. 바로 간다고 약속했어, 안 했어?"라고 혼을 낸다. 하지만 친구의 휴대전화를 함께 찾아주려고 한 행동은 잘한 것이다. 그 부분은 인정해 주고,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처리했으면 더 좋을지 가르쳐주면 된다. 언제나 전체가 잘못이라도 부분이 옳다면 인정해줘야 한다. 부분은 마음일 수도 있고, 행동일 수도 있다.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아이가 타당할 때는 "그 판단은 옳았어", "그 행동은 참 잘했구나" 하면서 인정해줘야 한다. 그래야 아이가 그다음에 오는 부모의 가르침을 더 잘 받아들인다. 아이의 마음이 단단해진다.

사랑한다, 미안하다, 고맙다 등 진솔한 표현을 한다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았다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 그들은 부모에게 "그랬다면 미안하다"라는 진실한 사과를 받고 싶어 한다. 그런데 부모들은 하나같이 "그랬다면 이해해라"라고 말한다.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네가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마음이 상했겠구나. 미안하다." 이렇게 말해주면 마음의 응어리가 조금은 풀릴 텐데, 부모들은 끝끝내 그렇게 말하는 것에 인색하다. 아이에게 뭔가를 잘못했을 때, 그것을 깨닫는 즉시 "미안하다"고 진솔하게 사과해야 한다. 또한 아이를 사랑한다면 사랑이 느껴지도록 "사랑한다"고 수없이 말해줘야 한다. 뭔가 걱정일 때도 불안해서 혼을 낼 것이 아니라 "아빠는 이런저런 점이 걱정이야"라고 말해야 한다. 아무리 부모라도 아이에게 고마운 것은 고맙다고 인사해야 한다.

아이가 자랄수록 안전한 거리 두기가 필요하다

부모와 아이 사이는 어릴 때는 굉장히 가까워야 한다. 시도 때도 없이 스킨십을 하고, 서로 좋아하고 친해야 한다. 부모에게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온갖 얘기를 다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다 청소년기가 되면 좀 멀어져야 한다. 조금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우리는 이것을 거꾸로 하는 경향이 있다. 어릴 때는 부모 역할을 잘 몰라서 아이와 친하지 않다가 아이가 자라면서 크고 작은 문제를 일으키면 아이에게 딱 달라붙어서 잔소리를 한다. 아이 인생의 선장처럼 군다. 그러면 아이는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 부모와 아이 사이도 매우 나빠진다. 부모와 사이가 나쁜 것처럼 아이 마음에 지속적으로 상처를 남기는 것도 없다.



갑자기 찾아오지 않는 뇌졸중

영화 <미나리>로 보는 뇌졸중

이해할 수 없지만 항상 다정하고 가족을 지켜주는 할머니. 그런 할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뇌졸중을 겪게 되고 끝내 신체활동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반신마비가 된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 나와 내 가족에 극단의 위기를 줄 수 있는 질병 뇌졸중. 뇌졸중은 어떤 병인가.

글. 이현아
감수. 서울아산병원 신경과 김범준 교수
사진. 영화 <미나리>



영화 <미나리>
감독 : 정이삭
출연 : 스티븐 연, 한예리, 윤여정, 앨런 김, 노엘 조 등
“미나리는 어디서든 잘 자라” 미나리를 기르고 먹는 한국인 가족이 미나리를 알지 못하는 미국의 아칸소에서 뿌리를 내리고자 고군분투하는 이야기이다. 미나리를 닮은 할머니 역의 배우 윤여정은 이 영화를 통해 세계 유수의 영화제에서 굵직한 상을 수상했으며, 지난 4월에는 한국인 최초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수상하기에 이르렀다. 한국인 할머니 특유의 캐릭터를 정형화 되지 않은 연기력으로 선보여 호평을 받았다.

시간을 다투는 병, 뇌졸중

뇌졸중은 뇌기능의 장애가 상당 기간 이상 지속되는 질환이다. 구체적으로는 뇌혈관이 막혀서 발생하는 뇌경색(허혈성 뇌졸중)과 뇌혈관의 파열로 인해 뇌 조직 내부로 혈액이 유출되어 발생하는 뇌출혈(출혈성 뇌졸중)을 통틀어 이르며, 출혈이나 경색이 어느 부위에서 나타났는가에 따라 증상도 다소 간의 차이를 보인다.

영화 <미나리>에서는 이야기 전개의 과정에서 특별한 전조 증상이 없던 할머니가 갑자기 뇌졸중에 걸리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 뇌졸중은 일시적인 신경학적 이상이 반복되다가 고착화된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이를 일과성허혈성 발작이라고 일컫는다. 뇌졸중이 생기기 전의 전조 증상으로는 일시적인 팔·다리 마비나 언어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지만, 그 밖의 경우가 더 많다. 일시적인 증상을 보이는 경우는 혈관이 막혔다가 스스로 재개통되는 경우로 이를 일과성허혈성 발작이라 부르는데, 이러한 경우라도 빨리 병원을 찾아 원인을 찾고 치료하는 것이 뇌졸중이 발생하여 장애가 고착화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뇌졸중 치료는 여타 질환과 비교해 특히 손익을 다투는 질환이다. 불과 몇 분 사이에도 치료 후 후유증의 경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영화에서는 다뤄지지 않았지만 가족들만이 알 수 있는 미세한 할머니의 변화가 일찍 발견되었다면, 뇌졸중에 대한 경각심이 공유된 상태에서 할머니의 치료가

보다 신속하게 이뤄졌다면, 이 가족의 위기도 조금은 다른 양태로 찾아왔을지 모른다.

신속한 뇌혈관 확보가 관건

뇌졸중의 증상은 대표적으로 한쪽 팔·다리 마비, 발음장애, 언어장애 등이 있다. 어지럼, 시야이상, 균형감각 상실 등도 뇌졸중의 증상중 하나이며 특히 후방순환계의 증상으로 예후가 나쁠 수 있어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 뇌졸중은 무엇보다도 신속히 막힌 혈관을 재개통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은 혈전 제거술 등으로 골든타임 안에 뇌혈관을 재개통 시키고, 여의치 않을 때는 관 삽입으로 혈전을 빼내는 시술을 할 수도 있다. 만약 증상 발생 후 24시간 내에 뇌혈관이 확보되지 않으면 후유증의 장애도가 높아진다. 지주막하 출혈은 더욱 엄중한 치료를 요한다. CT로 파열된 부위를 확인해 이를 막는 방식으로 대응하는데, 사타구니를 통해 도관을 삽입한 후 뇌동맥류 내부를 특수 코일로 채워 막는 코일색전술이나 부풀어 오른 뇌동맥류를 클립 같은 기구로 고정하는 클립결찰술 등이 있다. 뇌지주막하 출혈의 경우 사망률이 30%에 이르러 더욱이 치료에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 없다. 어느 쪽이라도 빠른 진단과 치료가 사망률을 낮추고 후유장애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임을 명심해야 한다.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한 평상시 예방법

뇌졸중 예방을 위해서는 올바른 식습관을 유지하고 놓치고 지날 수 있는 증상을 잘 파악해야 한다.

01.

식습관 관리

뇌졸중 예방을 위해서는 평소 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을 피하고 채소나 과일 등의 섭취를 균형 있게 해야 한다. 또 적당한 체중을 유지하고 스트레스에 적극 대응해 정신건강 관리에도 힘써야 한다.



02.

절주 & 금연

음주나 흡연은 뇌졸중에 영향을 미치는 생활 습관이다. 전문가들은 음주를 주 3회 이하로 할 것을 권고한다. 흡연 역시 일시적으로 혈압을 올려 뇌졸중 위험을 증가시키므로 금연이 바람직하다.



03.

지속적인 검사

고혈압, 당뇨, 뇌졸중 등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 뇌졸중에 대한 꼼꼼하고 꾸준한 관리가 필수적이다. 가족력이 있는 이들은 35세 이후부터 매년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고, 가족 구성원들이 뇌졸중 증상 등을 공유해 증상의 발견에 유의하는 것이 좋다.





노출의 계절 여름이 온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몸매를 위한 나만의 다이어트법은?

노출의 계절 여름이 다가옵니다. 부지런히 땀을 흘린 이에게는 뜨거운 여름의 태양도 나만을 비추는 하이라이트가 됩니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몸매를 만들기 위한 독자들의 다이어트법을 소개합니다.

건강을 가꾸는 사람들

eounmi

#건가사 #건가사이벤트 #심평원사보 #슬기로운다이어트 #건강다이어트 #식이요법 #운동 #뱃살_확찐자

슬기로운 다이어트 생활이라 하면 바로 식이요법과 운동이죠. 톰토미 방울토마토, 당근, 파프리카, 양배추 등의 야채 샐러드와 사과를 함께 갈아 넣은 비트 주스로 저녁 6시 이전에 간단한 식사를 하고, 집 근처 야외 체육시설에서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오랫동안 뱃살 확진자로 살았었는데 열심히 다이어트를 해서 살은 빠고 건강은 더하겠습니다^^

건강을 가꾸는 사람들

uig_jang

#건가사 #건가사이벤트 #심평원사보

코로나로 삶이 제한된 요즘 근력유지가 건강의 핵심 근육이 줄면 장애 발생 두배 는다. 소소하게 집에서 즐길 수 있는 나만의 운동 밴드를 이용해 근육을 짹~짹~ 잡아당겨 하루 30분만 투자하면 스트레스 해소와 다이어트에 최고네요!

건강을 가꾸는 사람들

ssim12aa

#건가사 #건가사이벤트 #심평원사보

<나만의 건강 다이어트법>
1. 하루 물 2L(8잔) 마시기! 2. 계단 걷기, 퇴근길 걷기 등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운동하기!
'하루 물 2L 마시기'는 건강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물이 우리 몸 속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여 에너지 소비율을 높이고 지방을 태워준다고 해서 매일 실천하고 있어요.

건강을 가꾸는 사람들

bbo_611

#건가사 #건가사이벤트 #심평원사보

다이어트 다시 가보자고

건강을 가꾸는 사람들

hyeseon477

#건가사 #건가사이벤트 #심평원사보

저의 슬기로운 다이어트는 건강한 식습관으로부터, 매일 아침 야채위주의 식사로 다이어트도 하고 건강도 챙겨요^^

<건강을 가꾸는 사람들> 7+8월호 #나누는 건강의 주제는 '코로나19 시대의 건강한 피서법'입니다. 코로나19에 유의하면서도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나만의 피서법이 있다면 <건강을 가꾸는 사람들>을 통해 소개해 주세요. *자연이 소개된 5분을 포함해 선정된 10분께 모바일 문화상품권(2만원)을 보내드립니다. ※ 자세한 참여방법은 P44을 참조하세요.

HIRA NEWS



심사평가원,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A등급 획득

심사평가원은 4월 12일,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2020년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에서 A등급을 획득했다. 심사평가원은 마스크 5부제 및 중복구매 확인시스템 구축,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인증 취득, VR안전체험관 운영, 대국민 안전캠페인 실시 등의 성과를 인정받아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심사평가원, '코로나19 대응 유공' 대통령 표창 수상

심사평가원은 4월 13일,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주관하는 「2021년 코로나19 대응 유공 정부 포상」에서 감염병 대응 분야 기관 최초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김선민 원장은 장기화된 코로나19 감염 대응으로 국민과 의료계 모두 지쳐있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본분을 다하여 코로나19 종식에 앞장서는 공공기관이 되겠다고 밝혔다.



2020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우수' 기관 선정

심사평가원은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2020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4년 연속 만족도 상승을 이루었다. 「2020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는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국민과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2020년 243개 기관 조사 결과, 우수기관 39개, 보통기관 82개, 미흡기관 75개, 제외기관 47개로 나타났다.



양훈식 진료심사평가위원장 이임

심사평가원은 4월 29일 본원 대강당에서 양훈식 진료심사평가위원장 이임식을 진행했다. 양훈식 (前)위원장은 2019년 취임하여 심사기준 일제 정비, 심사위원 M(Medical).S(Society).L(Leadership)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등의 성과를 이뤘다.



심사평가원, '국가산업대상' 고객만족 부문 3년 연속 수상

심사평가원은 4월 15일, 보건복지 분야 공공기관 최초로 「2021년도 국가산업대상」 고객만족 부문에서 3년 연속 수상했다. 심사평가원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 고객만족 경영을 실천한 점을 인정받았다.



심사평가원-서울대학교병원, 업무협약 체결

심사평가원은 4월 20일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서울대학교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국가 심뇌혈관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과제 발굴, 연구 데이터 및 결과 교류 등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제18기 건강보험심사평가 최고위자과정 입학식 개최

심사평가원은 4월 29일 서울 엘타워에서 「제18기 건강보험심사평가 최고위자과정」 입학식을 개최했다. 이번 과정은 의료계·언론계 등 45명의 다양한 분야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보건·의료분야 상호 교류를 통한 긍정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이진수 진료심사평가위원장 취임

심사평가원은 5월 3일 본원 대강당에서 이진수 진료심사평가위원장 취임식을 진행했다. 미국 UTMD앤더슨 암센터 교수, 국립암센터 원장 등을 역임한 이진수 위원장은, 건강보험의 유효적절한 운용과 함께 요양급여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호 <건강가사>를 읽고



강옥재 대구 수성구

<심장에 마음을 쏟다>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박남희 교수님의 관상동맥 질환에 대한 기사를 읽고, 대구에도 이렇게 유명하신 교수님이 진료하고 계신다고 하니 자랑스럽고, 한편 대구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지인이 박남희 교수님께 관상동맥우회술을 받고, 지금은 건강히 생활하고 있어 더 더욱 자랑스럽습니다.

유광열 대전 중구

<심혈관 질환 발생을 낮추는 내면 치유의 힘, 명상>을 관심 갖고 보았습니다. 특히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권장될 때 이런 명상이야말로 스스로 자신을 수련하면서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좋은 도움이 될 테라피 요법이 아닐까 싶네요. 코로나 위기도 극복하고 심혈관 질환 등의 스트레스도 예방하는데 많은 분들께 유익한 정보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유성호 서울 서대문구

이번에 처음으로 온라인 형식의 <건강을 가꾸는 사람들>을 접했습니다. 처음이라 그런지 익숙치는 않지만 이렇게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발전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곧 익숙해질까라 생각합니다^^ 매번 새로운 정보와 의학지식을 제공해주심에 감사드리며 덕분에 매일 접하는 환자들에게도 새롭고 보다 쉽게 의학정보를 전해드리기도 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건강을가꾸는사람들 180, 181호 독자엽서 당첨자

강옥재(대구 수성구)	송두월(서울 도봉구)	김어진(부산 금정구)	우도형(경기 평택시)	김선화(경기 화성시)
유광열(대전 중구)	김태환(대구 수성구)	최용범(경기 하남시)	장우익(강원 동해시)	강은경(강원 동해시)
유성호(서울 서대문구)	배영만(경북 포항시)	우수종(부산 해운대구)	조한석(경기 의정부시)	박미숙(경기 고양시)
신경은(강원 원주시)	이재춘(강원 원주시)	김태완(서울 서대문구)	강주찬(부산 해운대구)	김혜선(부산 사하구)

구독신청 / 구독취소 / 주소변경

01

PC 또는 스마트폰을 통해
<https://hirasabo.or.kr> 접속

02

하단의 구독신청 클릭

03

조회된 서식을 작성한 후
제출하기 클릭하여 완료

*구독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수집 이용동의 필수 사유)

*발송물이 반송되는 경우 해당 구독신청 건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개인구독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재동의 안내

개인구독자의 개인정보 일제 정비를 위해 좌측 QR코드를 스캔하시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 바랍니다
※ '21.6.16까지 미동의 시 다음호부터 간행물을 받아보실 수 없습니다

의약품 청구, 구입한 의약품으로 하셨나요?

요양기관 청구의약품 구입수량 사후관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약품 유통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요양기관의 의약품 청구내역과 의약품 공급업체의 공급내역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주요 사례

- 구입내역이 없는 의약품 청구
- 의약품 공급업체 착오
- 동일성분 내 저가의약품 구입 후 고가의약품으로 청구

구입과 청구내역 간 불일치 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서
사후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더 궁금하신 사항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033-739-2291~3)로 문의바랍니다.



'코로나19 시대의 건강한 피서법'은? 사진 올리고, 상품권 받자!

응모기간 :
2021년 6월 19일 까지

<건강을 가꾸는 사람들> 7+8월호 #나누는 건강의 주제는
'코로나19 시대의 건강한 피서법'입니다.
코로나19 시대에는 어떤 방법으로 피서를 즐기는지
각자의 아이디어를 소개해 주세요.



응모자 중 격월 10명을 추첨하여
모바일 문화상품권(2만원)을 증정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SNS 친구 추가



* 비공개 계정 등 확인이 어렵거나 저작권이 확보되어 있지 않는 게시물에
대하여는 당첨이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응모방법

01 step

'피서법'과 관련한
사진을 찍는다.

한적한 숲길 산책, 과일빙수
만들어 먹기 등 건강한 여름나기
모습의 사진이라면 무엇이든 OK!
단, 타인의 저작권,
초상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게시물은 NO!

02 step

인스타그램에 **#건가사**
#건가사이벤트
#심평원사보 해시태그와 사진,
게시글을 올린다.

코로나19 시대의 건강한 피서법을
자세히 소개한 내용을 적어주시면
확률 UP!

03 step

<건강을 가꾸는 사람들>
웹진,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당첨 여부를 확인한다.

당첨자들에게는 DM을 통해 당첨
축하 메시지와 함께 이름, 전화번호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당첨자들의 게시물은 <건강을 가꾸는
사람들>에 소개될 수 있습니다.

04 step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받는다.

모바일 문화상품권,
5+6월호 당첨 선물은
6월 30일에 발송됩니다

건강을 가꾸는 사람들

보건 의료 디지털 혁신으로 최적의 의료문화를 만드는 Global HIRA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소식지

VOL.182

2021. May | June

- 01 2021년(2주기 3차) 영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 안내
- 02 「신규 평가항목 제안 시스템」 안내
- 03 진료비확인 업무처리 시 「요양기관업무포털」을 이용하세요
- 04 2021년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현장지원 컨설팅서비스 안내
- 05 요양기관 청구의약품 구입수량 사후관리 안내

BOOK IN BOOK

의약계 안내

01 2021년(2주기 3차) 영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 안내



문의: 평가실 평가 1부 김희남 팀장(033-739-4533)

평가배경

- 영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는 '08년 영양병원 입원수가(일당 정액제)로 인한 의료서비스 과소 제공을 방지하고 영양병원의 전반적인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 그간의 평가를 통해, 영양병원 전반의 의료서비스 질적수준이 향상되었습니다.
- 영양병원 입원환자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에게 합리적 병원 선택을 위한 평가 결과를 제공하고자 '21년 평가를 시행합니다.

평가목적

- 진료 영역 중심의 의료 서비스 관리를 통해 입원환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영양병원이 자율적으로 의료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평가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평가개요

- 대상기간: '21년 7~12월 건강보험, 의료급여, 보훈 입원진료분*
- 대상기관: 영양병원 일당 정액 수가를 청구하는 모든 영양병원**

* 호스피스 정액입원 대상 건 제외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영양병원 중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은 제외



평가지표

- 총 15개(구조영역 4개, 진료영역 11개)

구분	지표명	가중치			
구조영역 (4)	구조영역 소계		30		
	의사 1인당 환자 수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간호인력 1인당 환자 수 약사 재직일수율	균등분할			
		진료영역 소계		70	
		과정 (3)	과정지표 소계		13
			유치도뇨관이 있는 환자분율	5	
치매환자 중 MMSE검사와 치매척도검사 실시 환자분율	6				
항정신성의약품 처방률	2				
진료영역 (11)	결과 (8)	결과지표 소계		57	
		전월 비교 5% 이상 체중감소 환자분율	6		
		욕창이 새로생긴 환자분율	10		
		욕창 개선 환자분율	10		
		중등도 이상 통증 개선 환자분율	10		
		일상생활수행능력(ADL) 개선 환자분율	10		
		당뇨병 환자 중 HbA1c 검사결과 적정범위 환자분율	7		
		장기입원(181일 이상) 환자분율	2		
	지역사회 복귀율	2			

평가자료 및 평가방법

- 평가자료: 요양기관 현황신고자료, 청구명세서 및 환자평가표, 행정안전부 사망자료
- 평가방법: 각 평가지표별 표준화 과정을 거쳐 가중치를 반영한 후기관별 종합점수 산출 결과를 토대로, 국민이 알기 쉽게 평가등급(1~5등급)을 부여합니다.

평가결과 활용('23년 6월 공개 예정)

- 국민이 의료정보로 이용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 공개합니다.
- 영양병원별로 평가 결과와 비교 정보를 제공하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 질 향상을 지원합니다.

※ 평가 세부계획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 > 알림 > 공지사항

02 '신규 평가항목 제안 시스템' 안내



문의: 평가운영실 평가개발부 운영영 과장 (033-739-35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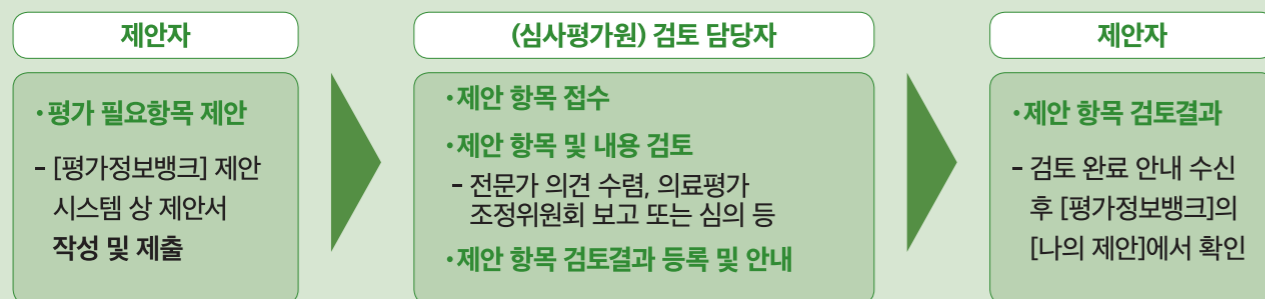
신규 평가항목 제안 시스템이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영양급여 적정성 평가(이하 '적정성 평가')를 통해 질병, 수술 및 약제 사용 등 병원의 의료서비스를 의·약학적 측면과 비용 효과적 측면에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 적정성 평가는 병원이 자율적으로 의료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영양급여비용의 적정성을 보장하여 국민의 의료 선택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 '17년 국민과 의료계가 직접 평가대상(항목)을 제안할 수 있는 '신규 적정성 평가항목 제안 시스템'(이하 '제안 시스템')을 도입하였으며, '21년 제안 참여 확대를 위해 상시 제안 가능한 온라인 기반 시스템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신규평가 제안항목 추진현황 ('21년 4월 기준)]

제안항목	추진현황
• 수혈	1차 평가 진행 중
• 내시경실 환자안전관리 • 중증상부위장관 출혈 • 대장중양절제술(내시경)	'내시경 검사 및 치료'로 통합하여 예비평가 완료
• 검사영역에서의 의료방사선피폭의 적절성 및 안전관리 •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영상검사'로 통합하여 예비평가 진행 중
• 재원일수 • 신경차단술	예비평가 진행 중
• 류마티스관절염	예비평가 진행 예정
• 슬관절치환술 • 고관절치환술	평가지표 개발 완료
•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 의료관련감염	평가지표 개발 진행 중
• 의료전달체계 • 약제장기처방(30일 이상) • 장애인 접근성 및 장애친화성	평가지표 개발 검토 예정

신규 평가항목 제안 및 처리 절차



신규 평가항목 제안 시스템 이용방법

■ 제안시스템 접속을 통한 제안방법

1. 평가정보뱅크 로그인

• 신규 평가항목 제안은 [평가정보뱅크] 에서 개인/기관 로그인 후 이용

- 평가정보뱅크(<https://aq.hira.or.kr>)* 접속 또는 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 > "병원평가정보" > "평가정보뱅크 연계" 클릭
 - *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평가정보뱅크' 검색 가능
- "국민제안" > "평가항목 및 지표 제안" 클릭



③ [상시의견 수렴] > "신규 평가항목 제안" 클릭



2. 신규 평가항목 제안 안내 확인

- 제안 시스템, 제안 전 확인사항 및 신규 평가후보 항목 발굴 진행 절차에 대한 사항 등을 확인합니다.
- “평가지표 조회 바로가기”를 통해 제안할 항목의 현재 평가 수행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신규 평가항목 제안서 작성

- 제안서 작성은 [제출자 정보]와 [제안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 제출자 정보는 접수 확인 및 검토결과 안내(문자 메시지, 이메일 발송) 등에 활용됩니다.
- 제출자격이 ‘기관’인 경우 소속기관 작성은 필수입니다.

» 제안서 작성

■ 제출자 정보

성명:

제출자격: 개인 기관 소속기관: * 제출자격이 '기관'인 경우 입력

전화번호: 이메일: @ hanmail.net

* 표시는 필수항목입니다.

- 제안 내용은 [평가항목], [제안 근거], [배경 및 목적], [이론적 근거], [평가 후보지표 및 내용]을 필수 작성해야 제출 가능합니다.
- [제안 서식]을 이용할 경우, “ 서식 다운로드”를 통해 서식 파일(한글, MS워드) 다운로드하여 작성 및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제안 내용

신규 평가항목 제안

평가항목:

의도 및 구성 요소(평가 영역): 환자안전 효과성 환자중심성 효율성 연계성 형평성

제안 근거: (문제의 중요성) 유병률 혹은 진료비 규모가 큼 (문제의 중요성) 사망률이나 치명률, 합병증 발생률이 높음 (문제의 중요성) 사회적 관심 증가 (개선 가능성) 전반적인 질 향상이 필요함 (개선 가능성) 의료기관 간 혹은 지역 간 격차가 큼 (개선 가능성) 임상진료지침 등 준수할 기준이 존재함 (측정 가능성) 적용 가능한 질 지표가 존재함 (측정 가능성) 평가자료 수집이 비교적 용이함 기타:

배경 및 목적:

이론적 근거:

평가 후보 지표 및 내용:

평가 실행방안:

기대 효과 및 활용 방안:

첨부파일 추가: 파일명: 파일용량:

추가 삭제 다운로드

4. 제안자의 신규 평가항목 제안 내용 확인

- [나의 제안]에서 제안자가 작성한 내용을 확인, 수정, 삭제, 취소 및 제출할 수 있습니다.

HIRA 평가정보뱅크 지표조회 지표비교 관심지표함 지표통계 국민제안 서비스소개

홈 > 평가Bank > 국민제안 > 평가항목 및 지표 제안

안내 나의 제안 제안 전체 조회

» 나의제안 목록

- 제안 의견을 더블클릭하시면, 해당 의견의 상세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전행상태가 '임시저장'인 경우) 저장된 의견 수정 후 제출, 삭제 가능
- (전행상태가 '접수대기', '검토중'인 경우) 제출한 의견 취소 가능

연번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의견주제	접수번호	제출일자	접수일자	전행상태	종결유형	담당부서	취소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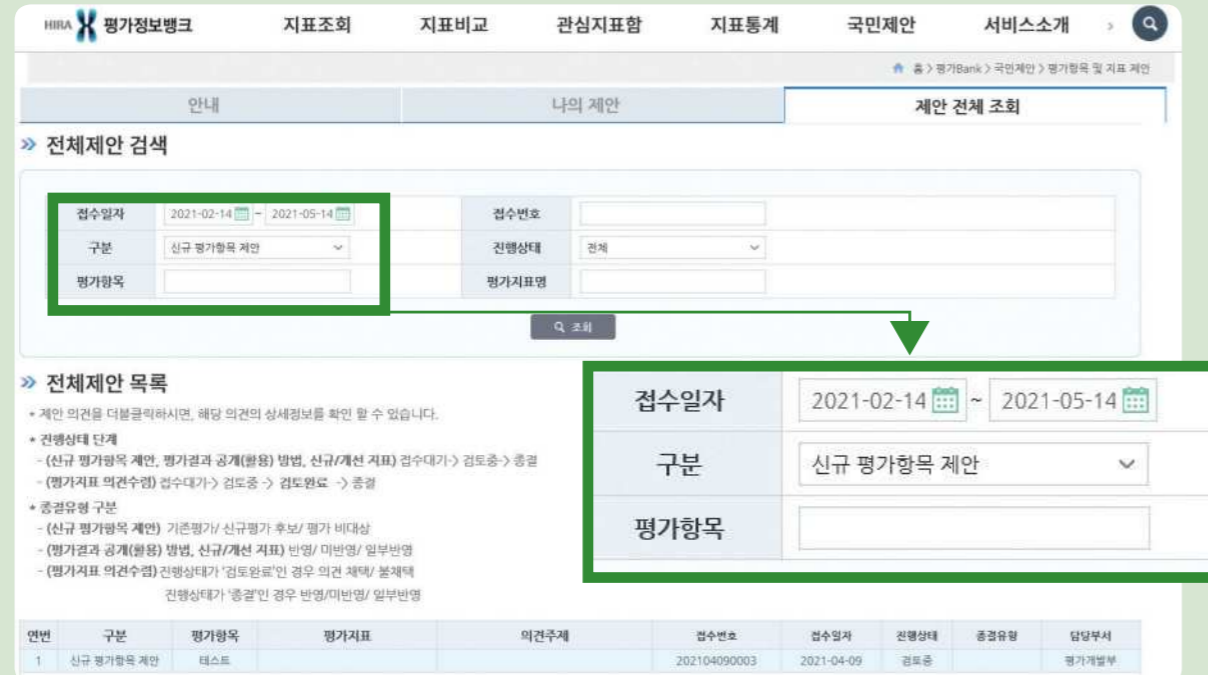
03 비급여 진료비확인 업무처리 시 '요양기관업무포털'을 이용하세요



문의: 고객센터 비급여 진료비확인부 심행자 팀장(033-739-1431)

■ 제안된 모든 신규 평가항목 살펴보기

- [제안 전체 조회]에서는 제안자의 내용 뿐 아니라 제안된 모든 항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검색 조건의 [구분]을 '신규 평가항목 제안'으로 선택 후 조회하면, 제안된 신규 평가항목의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 신규 평가항목 제안 메뉴 및 세부 내용은 운영과정 등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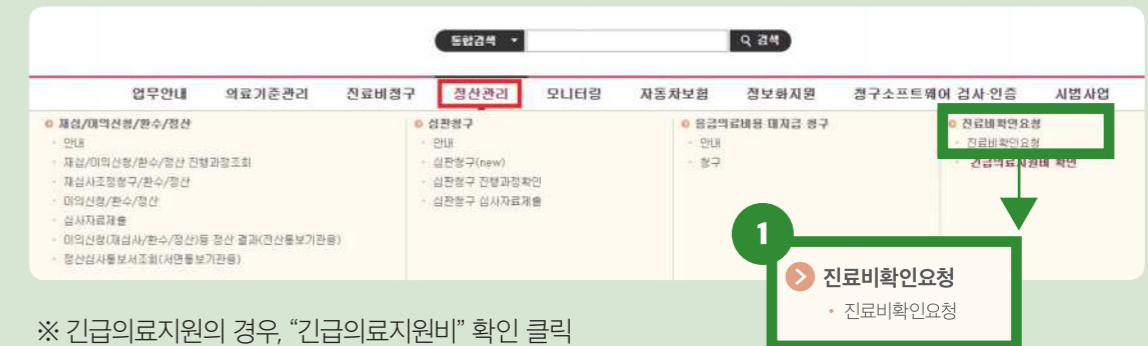
개요

- 요양기관에서 비급여 진료비확인 요청자로 제출 및 환불금 지급방법 선택 시 「요양기관 업무포털」(biz.hira.or.kr)을 통해 업무를 쉽고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드리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비급여 진료비확인 요청자료 제출방법

- 「요양기관업무포털」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확인이 접수된 민원인의 진료 관련 요청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요청자료: 비급여 진료비 상세내역 및 진료기록자료 등
- 파일형태: JPG, PDF, ZIP, Excel 등

① 「요양기관업무포털」 접속 및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정산관리” > “진료비확인요청”을 클릭하여 [확인내역조회]로 이동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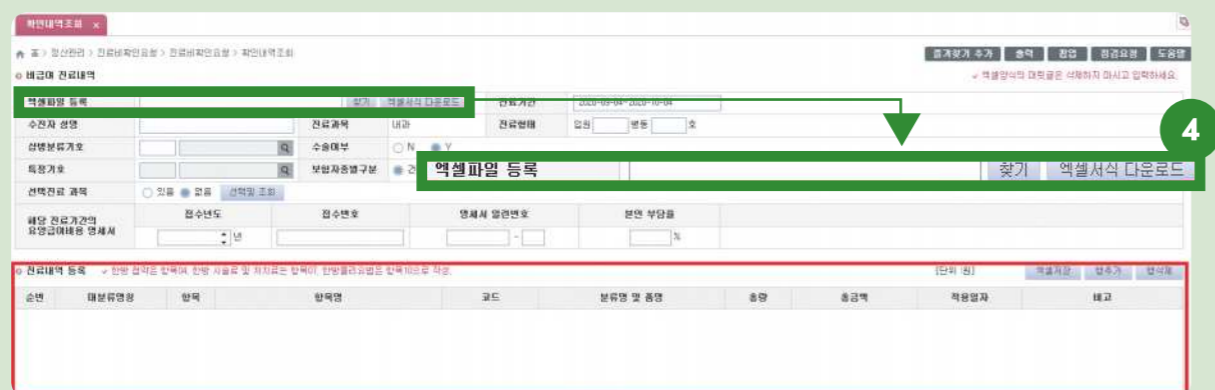
※ 긴급의료지원의 경우, “긴급의료지원비” 확인 클릭

② [확인내역조회] 화면에서 대상 수진자를 더블클릭하면 [진료비확인요청 상세내역 조회]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③ 해당 수진자의 [작성된 대상목록 내역]에서 “등록”을 클릭하면 [비급여 진료내역]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④ 비급여진료비 상세내역서는
- 1) (등록대상이 많을 경우) [엑셀파일 등록]의 "엑셀서식 다운로드"하여 작성 및 업로드하거나,
 - 2) (등록대상이 적을 경우) [진료내역 등록]의 "행추가"를 클릭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엑셀파일 업로드 시 화면 하단의 [진료내역 등록] 항목이 반영된 지정서식에 작성 요망

④-1 화면 하단 [첨부파일]에 "파일추가"를 클릭하여 요양기관에서 작성한 비급여 진료내역 및 진료기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파일형식 무관)

⑤ "임시저장"한 후 "이전"을 클릭, [비급여 진료내역]화면으로 이동하여, 제출을 클릭해야 최종 제출됩니다.



비급여 진료비확인 추가자료 제출방법

① 추가자료 제출 요청이 있을 시, 비급여 진료비확인 요청자료 제출방법의 ①, ②번 과정 후, "등록"을 클릭하면 [추가자료제출] 팝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② "파일추가"하여 제출할 파일을 불러오고, "최종제출"을 클릭합니다.
- ※ 최종제출 후 자료수정 불가



비급여 진료비확인 이의신청방법

• 비급여 진료비확인 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 「의료급여법」 제30조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① 비급여 진료비확인 요청자료 제출방법의 ①번 과정 후, 대상 수진자(민원종류: 요양급여, 처리상태: 종결)를 선택하여 [진료비확인요청 상세내역 조회]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② [세부정산내역서] 옆 "이의신청서 작성"을 클릭하여 작성합니다.



비급여 진료비확인 환불금 지급방법

• 비급여 진료비확인요청 처리 결과가 '환불인 건에 대해 지급방법(공제처리 또는 자체환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비급여 진료비확인 환불금 지급방법 선택

- ① 비급여 진료비확인 요청자료 제출방법의 ①, ②번 과정 후, 해당 수진자의 민원종류가 '환불금 지급요청'인 건을 확인합니다.
- ② [지급방법]에서 "공제처리/자체환불"을 선택한 후, "저장"을 클릭하면 최종 선택이 완료됩니다.

※ 단, "자체환불" 선택 시, [지급예정일자]와 [실 지급일자]도 함께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4 2021년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현장지원 컨설팅서비스 안내



문의: 정보운영실 정보화지원부 김태현 주임(033-739-0865)

개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5년도부터 요양기관이 사용하고 있는 국민의료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보호를 위해 의약단체와 협력하여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표준가이드 제공, 교육·기술 지원, 상담사례집 제작·배포 등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란?

- 행정안전부 주관 민간분야의 자율적인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 중인 제도('16. 8.~) ※ '20.8.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업무 이관
- 개인정보처리자의 원활한 자율규제 활동을 돕기 위해 분야별 자율규제단체 및 전문기관을 지정

· (의약분야 자율규제단체)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한방병원협회, 대한한약사회

· (의약분야 자율규제 전문기관) 심사평가원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9-124호(2019.3.8.) '의약분야 자율규제 전문기관으로 심사평가원 지정'

· 요양기관 혜택

- 의약단체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서비스 및 **심사평가원의 컨설팅 서비스를 수행한 요양기관은 정부의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를 1년간 면제**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 부여
- ※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자료제출 및 검사의 면제 등)

서비스내용

심사평가원 및 의약단체 개인정보보호 전문가가 현장지원을 통하여 해당 요양기관 환경에 맞는 관련 법령 안내 및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사항에 대한 조치를 지원하는 예방적 서비스입니다.

· **대상:**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한방병원협회, 대한한약사회 소속 요양기관

· **신청기간:** '21.4.1.~'21.9.30.(각 지역별 선착순 26개 기관까지 신청 가능)

· **신청방식:** 요양기관업무포털(https://biz.hira.or.kr)을 통해 신청
 * 신청 후 서비스팀(심사평가원 및 의약단체 담당자) 배정하여 유선 일정 협의 등 진행

· 주요내용

-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사항 46항목* 준수 여부 확인 및 개선사항 도출·지원 등 맞춤형 관리
- * 자율점검서비스와 동일
- 법정서식 등 양식 제공, 작성 가이드 제공, 개인정보취급자 의무교육 지원 등

진행절차



신청방법

① 요양기관업무포털(https://biz.hira.or.kr) 접속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정보화 지원



② 메뉴이동: "정보화지원" > "개인정보보호 현장지원 컨설팅 서비스" > "컨설팅 신청"



05 요양기관 청구의약품 구입수량 사후관리 안내



문의: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의약품정보조사부 김기영 과장(033-739-2291~3)

요양기관 청구의약품 구입수량 사후관리란

■ 요양기관 청구의약품 구입수량 사후관리는 요양기관의 의약품 청구내역과 공급업체의 공급내역을 비교·분석하여, 구입 없이 청구되거나 구입량과 청구량이 현저하게 차이나는 의약품에 대하여 확인·정산하는 업무입니다.

※ 관련 근거

- 「약사법 시행규칙」 제45조(의약품의 공급내역 보고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약제·치료재료의 요양급여비용)
- 「요양급여비용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제4조의2(요양급여비용의 심사방법 및 절차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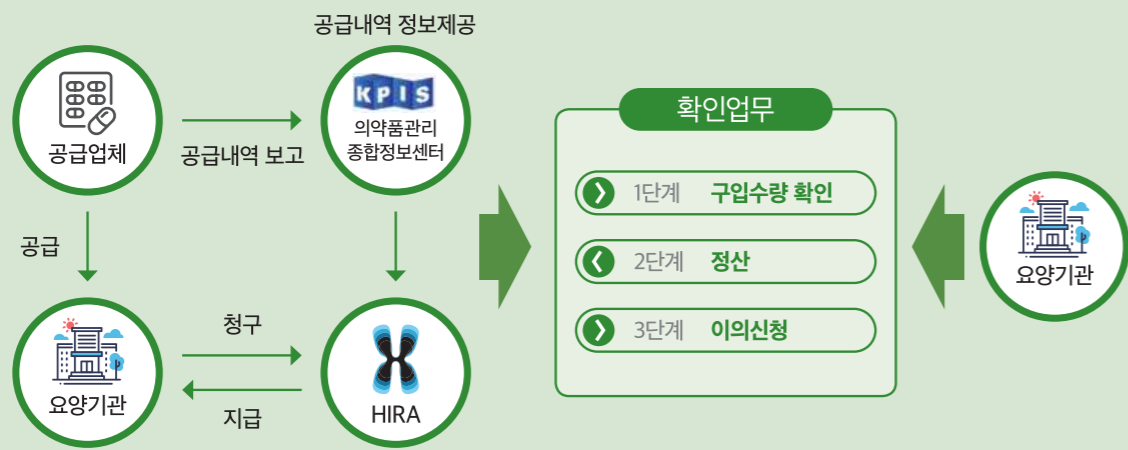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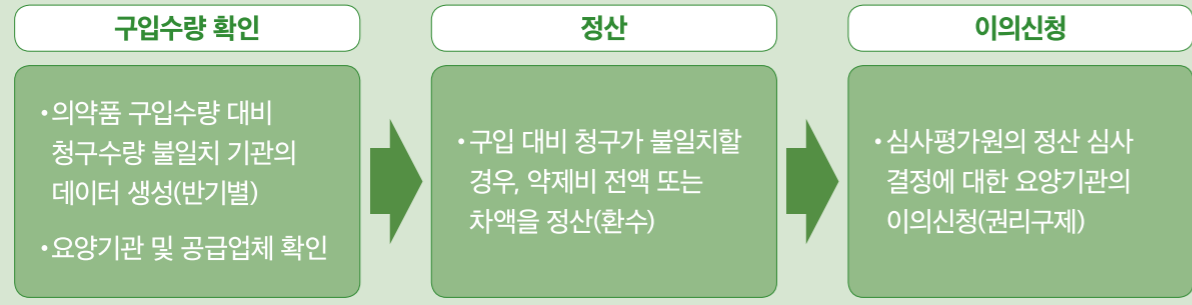
■ 목적

- 구입정보에 기반한 올바른 의약품 청구 유도
-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 의약품 유통거래 투명성 확보

■ 대상기관: 전체 요양기관

■ 관리주기: 반기별

■ 처리단계



구입과 청구내역 간 불일치 사례

- 구입내역이 없는 의약품 청구(사례1)
- 의약품 공급업체 착오(사례2)
- 동일성분 내 저가의약품 구입 후 고가의약품으로 청구(사례3)

• 구입수량이 확인되지 않은 의약품 청구(공급내역 없음)

사례 1 구입내역이 없는 의약품을 청구한 경우 ⇒ 전액 환수

공급업체			요양기관					
공급			구입			청구		
의약품명 (코드)	공급 단가	수량	의약품명 (코드)	구입 단가	수량	의약품명 (코드)	청구 단가	수량
공급 없음			구입 없음			△△정 5mg (6**10030)	48,557원	50개

☞ 48,557원×50개=2,427,850원 환수

• 의약품 공급업체 착오

사례 2 구입내역은 있으나 공급내역 보고 누락인 경우 ⇒ 환수금액 없음

공급업체			요양기관					
공급			구입			청구		
의약품명 (코드)	공급 단가	수량	의약품명 (코드)	구입 단가	수량	의약품명 (코드)	청구 단가	수량
공급 없음			△△정 5mg (6**10030)	48,557원	50개	△△정 5mg (6**10030)	48,557원	50개

• 동일성분 내 저가의약품 구입 후 고가의약품으로 청구

사례 3 동일성분 내 비슷한 약품명의 약품코드로 청구한 경우 ⇒ 차액 환수

공급업체			요양기관					
공급			구입			청구		
의약품명 (코드)	공급 단가	수량	의약품명 (코드)	구입 단가	수량	의약품명 (코드)	청구 단가	수량
□□2그램 (6**700271)	5,855원	10,000개	□□2그램 (6**700271)	5,855원	10,000개	◇◇2그램 (6**001841)	5,918원	9,000개

☞ 5,918원 - 5,855원 = 63원 × 9,000개 = 567,000원 환수

“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
 1644-2000 로 문의 하세요!
 ”

‘실종 아동 및 장애인을 찾습니다’



이름 김일형(당시 만 8세 10개월, 남)
발생일자 2010. 09. 04 (토)
발생장소 충남 서산시 부석면 강당리
신체특징 키 125cm, 체중 20kg, 자폐성장애, 왜소한 체격, 가름한 얼굴형, 검정색 스포츠형 머리
착의사항 흰색 메리야스(가슴에 별그림), 청색 반바지, 청색 장화



이름 유성원(당시 만 33세 0개월, 남)
발생일자 2009. 08. 10 (월)
발생장소 충남 서천군 장항읍
신체특징 정신장애, 스포츠형 머리, 계란형 얼굴, 건장한 체격, 얼굴에 주근깨가 많음
착의사항 흰색 티셔츠, 남색 반바지, 흰색 운동화



이름 윤성욱(당시 만 34세 0개월, 남)
발생일자 2009. 08. 03 (월)
발생장소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동
신체특징 키 177cm, 체중 80kg, 정신장애 3급, 코밑에 작은 흉터, 통통한 체격 스포츠 머리
착의사항 빨간색 티셔츠, 검정색 반바지, 갈색 샌들, 검정색 안경



이름 정승연(당시 만 3세 0개월, 남)
발생일자 2006. 10. 24 (화)
발생장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심곡동
신체특징 키 110cm, 둥근 얼굴형, 야윈 체격, 본인 이름을 말할 수 있음
착의사항 동물모양 노란색 점퍼, 청색 털실바지, 프로스펙스 운동화

